

한국십진분류표 500: 기술과학

2024년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책의 이름표이자 주소인
한국십진분류표에 맞춰 각 분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달의 주제는 한국십진분류표 500, '기술과학'입니다.

의학, 농업, 공학, 건축학 등의
기술과학 관련 도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도서관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도서관과 오늘 기술의 역사와 과학적 공학의 출현	04
주목! 이 도서 기술과학 분야 1위 도서 《크로스 사이언스》	08
도서관 산책 혁신적 디지털 기술, 도서관의 변화	10

오늘의
도서관

발행일 2024년 6월 30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배명희, 손효림, 이은경, 김혜련
편집 박정연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23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7+8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brary1004>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표지 이야기 / 일러스트 **민지홍**
《오늘의 도서관》7+8월호 주제는 ‘기술과학’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사람들과 도서관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시대에 따라 형태가 변할 뿐, 지식의 중심지로서 도서관의 핵심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도서관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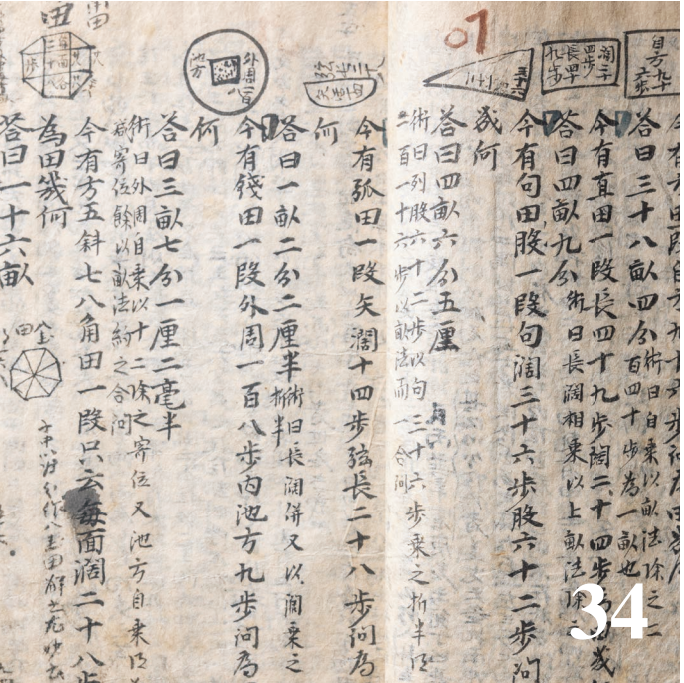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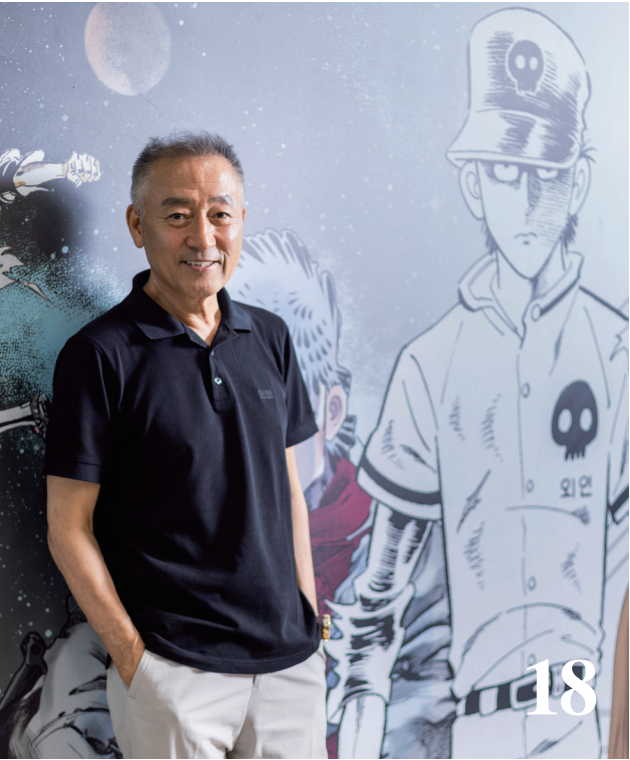
사서 큐레이션 뜨거운 더위를 식혀줄 7+8월 추천 도서	14
오늘의 만남 “까치와 저는 애증의 관계죠.” 만화가 이현세	18
꿈을 이루는 도서관 제주의 사람과 글을 책으로 만드는 인큐베이터 ‘제주 탐라도서관’	22
보물을 찾아서 스페인 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BNE)과 《돈키호테》 초판	26
도서관 트렌드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빙	30

서재를 걷다

문헌의 가치 《신편산학계몽》과 《음양잡설》 서책 앞뒷면에 빼곡히 담긴 안정복의 열정	34
문학상 읽기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은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 카멜 다우드의 《모르소, 살인사건: 카뮈의 《이방인》,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	38
나를 바꾸는 독서 믿음이라는 세계의 형식 오후, 《민습니까? 믿습니다!-별자리부터 가짜 뉴스까지 인류와 함께해온 미신의 역사》	42
숫자로 보는 데마 랭킹 무더운 여름에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 ‘최근 3년간 여름 인기 급상승 도서 분석’	46
똑똑한 독서 생활 내 일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DIY 독서	48

함께 나누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2
국내외 도서관 소식	56
한 장의 감성	59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 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r.or.kr

기술의 역사와 과학적 공학의 출현

고대부터 자연과학은 주로 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였기에 자연과학은 사유의 과정이 문헌으로 남아 있다. 이와 달리, 기술은 생산 계층인 기술자들(농부, 대장장이, 선원, 광부)이 담당하는 활동이었고, 이들은 절대다수가 문맹이어서 자신들이 지닌 지식과 노하우를 글로 써서 남길 수 없었다. 그러나 인간을 정의하는 용어 중 하나로 쓰이는 ‘호모파베르(도구를 만드는 인간)’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복잡한 도구의 제작과 사용은 인류를 다른 동물종들과 구분 짓는 요소였고, 그런 점에서 기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한 연원을 갖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글 김영진(한국항공대학교 강사)



000 종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	-----------	-----------	-------------	-------------	-------------	-----------	-----------	-----------	-----------

한국십진분류법(KDC)의 기술과학이란?

도서관의 자료 주제를 열 가지로 구분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오늘의 도서관’을 살펴본다. 여섯 번째 분류인 기술과학에는 의학, 농업, 공학, 건축학, 기계공학 등이 해당한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기술과학

자연과학을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 혹은 그러한 시도”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활동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과학사학자들은 과학의 기원을 흔히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찾는데, 이렇게 보면 자연과학의 역사는 대략 2,500년 정도 된 셈이다.

반면 기술을 “인간에게 유용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자연을 변형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한다면, 이러한 의미의 활동은 역사가 훨씬 길다. 앞서 말했듯이 ‘도구를 만드는 인간’은 인류를 다른 동물종과 구분 짓는 요소였기에 기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술은 자연과학과 달리 그것이 존재해 온 대부분의 기간 동안 ‘책’과 인연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근대 이전의 기술사는 대부분 책이나 문헌이 아니라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기술적 인공물(유물이나 유적)을 찾아 연구한다. 자연과학과 기술의 이러한 차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론이나 발명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가령 우리는 우주의 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태양중심설(지동설)을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서양 중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풍차나 수차 같은 동력 기관을 누가 처음 발명했는지는 모른다.

익명성을 벗어난 기술, 책에 담기다

이처럼 술한 익명의 기술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온 기술의 성취가 특정한 인물과 연관되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기의 일이다. 이 시기 몇몇 기술자는 독학으로 읽고 쓰는 법을 깨친 후 대학이나 공정에 있는 학자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그런 기술자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르네상스기의 만물박사 레오나르도 다빈치 일 것이다. 다빈치는 과학자, 화가, 조각가, 공상적 발명가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벽을 축조하고 해자를 파고 대포를 주조하는 등 군사 엔지니어로 활동한 인물이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관심 있는 지식인들에 의해 특정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기술을 상세히 소개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례로 광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의 인문주의자 게오르기우스 아그리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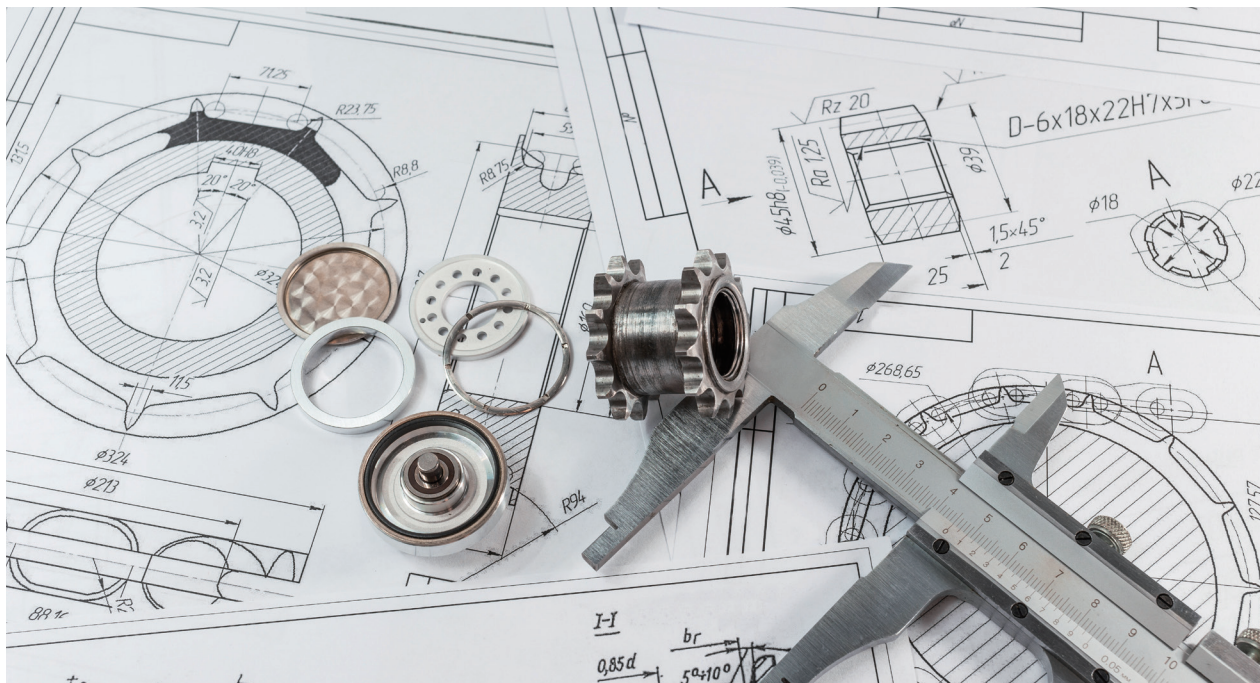


의 책 《금속에 관하여》(1556)는 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의 광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기술이 쓰였는지 수많은 도면을 첨부해 서술한 고전으로, 당대부터 널리 읽혔다. 이러한 경향의 정점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백과전서》 프로젝트일 것이다. 《백과전서》는 텍스트가 17권, 도판이 11권에 달했고, 완간하는 데 20년이 넘게 걸린 대형 프로젝트로 종교, 법, 문학, 과학 등 모든 주제를 망라했다. 특히 계몽사상가들은 당대의 기술 장인들 사이에서만 전해지던 실용적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고자했고, 동력 기계, 대장일, 광업, 조선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제조 기술에 대해 정교한 삽화를 곁들여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저자들은 자신들만 알고 있는 기술적 비결의 유출을 우려한 장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기술이 과학적 공학으로 변모하다

뒤이은 19세기는 이전까지 도제식으로 전수되던 수많은 기술 분야가 과학에 기반을 둔 공학(Engineering science)으로 탈바꿈한 시기였다. 이러한 흐름은 18세기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국립학교를 설립해 공병 장교와 도로 및 교량 건설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고자 했고, 이러한 학교들에선 도제식 훈련 대신 과학과 수학 이론을 가르쳤다. 이러한 학교 문화는 독립전쟁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의 실용적 기술 전통과 합쳐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과대학(Engineering School)으로 발전했다. 미국의 공과대학에서는 과학 이론과 실험의 방법론을 도제식 전통에서 물려받은 현장 실습과 결합시킨 독특한 학풍을 구축했다.

처음에는 공학의 세부 분야가 토목공학, 기계공학, 광산공학뿐이었지만, 19세기 말 이른바 ‘제2차 산업혁명’ 시기에 전기와 화학산업이 부상하면서 전기공학과 화학공학이 추가됐고, 20세기로 접어들어 항공공학, 전파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같은 분야들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했다. 20세기에 새



로 등장한 이러한 공학 분야들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라는 군사적 계기가 질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오늘날 도서관에서 ‘기술과학’으로 묶여 있는 여러 공학 분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차례로 등장했다. 500번째 서가를 눈으로 훑다 보면 이들 분야의 명칭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학 도서를 왜 읽어야 하는가

도서관을 찾는 독자들에게 500번째 서가는 판형이 크고 두꺼우며 펼쳐보면 수식이 즐비한 전문 서적들이 줄줄이 꽂혀 있는 부담스러운 공간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선 기술의 역사와 철학 등 기술과 공학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를 담은 책들이 있다. 일례로 ‘테크놀로지의 계관시인’으로 불리는 미국 듀크대학교의 토목공학과 교수 헨리 페트로스키의 저작들은 기술과 공학의 여러 주제를 딱딱하지 않게 다룬 대표적인 책으로 수많은 추천 목록에 올라 있다. 이러한 책들은 지나치게 전문적인 논의로 빠지지 않으면서 기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령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와 같은 질문은, 과거에 로봇 같은 자동화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돌아보면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실생활에 유용한 수많은 실용 서적들이 500번째 전문 서적들 사이사이에 포진해 있다. 요즘에는 굳이 도서관이나 서점을 찾지 않고 구글이나 유튜브 검색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만약 반려동물을 처음 키우거나 정원을 처음 가꾸려 하는 사람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는 법’과 같은 제목을 달고 있는 책들이다. 그러므로 ‘기술과학’이라는 분류에 압도되지 말고 서가를 여기저기 거닐다 보면 자신만의 보석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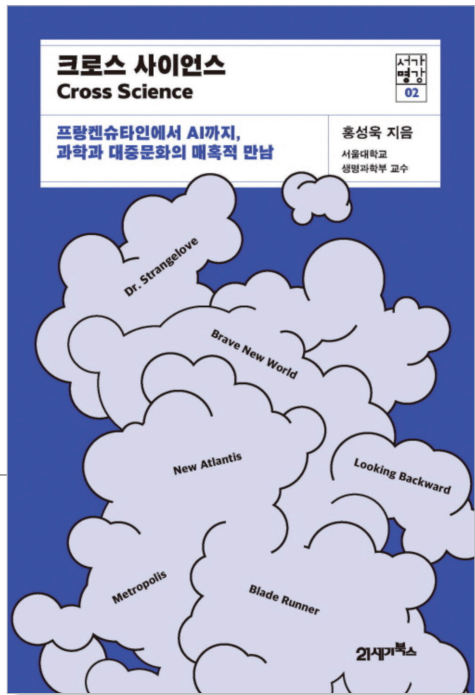
김명진 •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미국 기술사를 전공했다. 현재 한국항공대학교에서 기술사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번역과 집필 활동도 하고 있다. 저서로 《아누스의 과학》(2008), 《20세기 기술의 문화사》(2018) 등이 있다.

기술과학 분야 1위 도서 《크로스 사이언스》

《크로스 사이언스》는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로 발간된 책으로, 부제는 ‘프랑켄슈타인에서 AI까지, 과학과 대중문화의 매혹적 만남’이다. 이공계 및 인문계 전공 학생들이 모두 호평을 내린 강의 내용을 묶은 책이라고 하니 더욱 관심이 쏠릴 법하다. 물론 이런 문구만 보고 책을 집어 들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이런 문구를 내세운 책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대중문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글 김현식(문화평론가) 사진 출판사



<기술과학 분야 도서 대출 순위>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1	《크로스 사이언스: 프랑켄슈타인에서 AI까지, 과학과 대중문화의 매혹적 만남》	홍성욱 지음	21세기북스	2019
2	《공학의 눈으로 미래를 설계하라: 연세대 공대 교수 22명이 들려주는 세상을 바꾸는 미래 기술》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지음	해냄	2019
3	《지구를 구할 여자들: 유쾌한 페미니스트의 과학기술사 뒤집어 보기》	카트리네 마르샬 지음 김하현 옮김	부키	2022
4	《즐거운 종이 실험실: 집에서 만드는 종이 발명품》	캐시 세서리 지음 이승택·이준성·이재분 옮김	꿈결	2019
5	《방구석 박물관: 플라톤의 알람시계부터 나노 기술까지 고대인의 물건에 담긴 기발한 세계사》	제임스 M. 러셀 지음 안희정 옮김	북트리거	2019

* 대출 순위 조사 기간: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아동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에 뛰어난 과학기술

어느새 융복합이라는 말이 시대적 화두가 되었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책 제목에 있는 ‘크로스(Cross)’라는 말은 학제 간 경계를 허문다는 의미로, 교육 현장에서 애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물론 융복합 과정에서 무조건 섞거나 횡단한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엇인가 중심축이 있어야 하며, 저자는 이 중심축을 과학(Science)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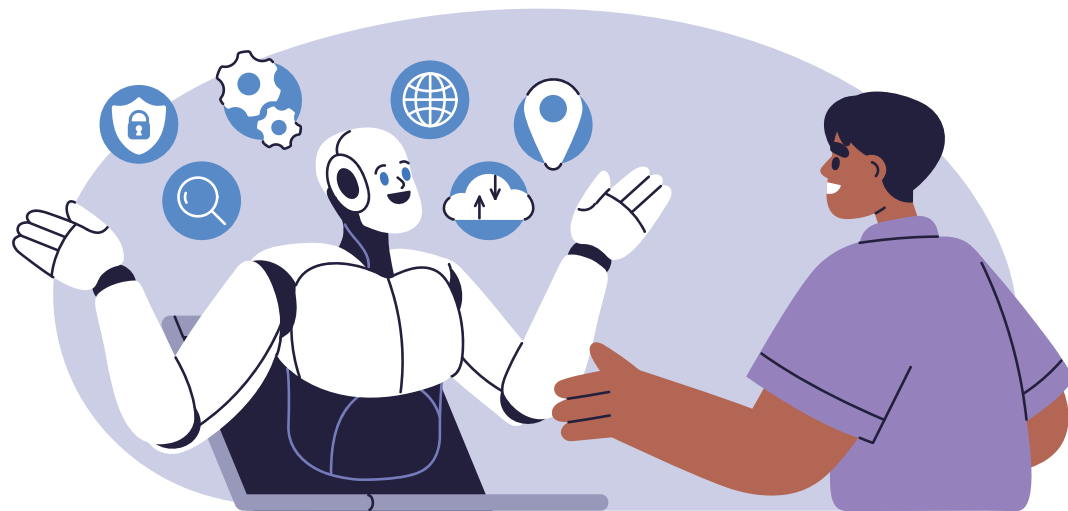
이 책은 소설, 애니메이션, 영화와 같은 예술작품 속에서 과학기술과 그 의미, 가치를 찾는다. 과학기술이라는 학문이 단순히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한다고 밝힌다. 또한 과학과 인문학, 예술 등의 접점을 포착한다. 대중문화 콘텐츠를 분석하는 것, 즉 “문화 속에서 과학과 인문학의 교차를 읽어내는 작업은 두 문화의 틈을 좁혀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유명하거나 고전적인 작품을 함께 접하며 과학의 원리나 논쟁점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인간과 기계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은 SF영화 <공각기동대>, <블레이드 러너>는 《SF 철학》(마크 롤랜즈 지음, 한성화·조동섭 옮김, 미디어2.0, 2005)과 비슷한 결을 가지며 로봇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고전소설 <프랑켄슈타인>이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에서는 비정상적인 과학자의 길로 들어서는 이들을 통해 과학자의 윤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 읽기

이 책은 기존의 책들과 다른 결이 있다. 인문학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다루는 일부 책의 경우 다소 부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학기술의 미래는 디스토피아라는 공식이 있는 듯 싶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원리나 가치를 도외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은 과학을 잘못 이해하거나 호도하는 책을 파헤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소설 《새로운 아틀란티스》(프란시스 베이컨 지음, 김종갑 옮김, 예코리브르, 2002) 등의 작품 속에서 과학이 이상적인 유토피아 사회에 어떤 이미지를 할 수 있을지도 살핀다. 과학을 통해 세상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을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더구나 요즘 젊은 세대는 과학기술을 우월한 미래상으로 연결하는 책들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런 점 때문에 이 책이 눈길을 끌었을 것이다. 교육적으로도 유용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을 개인이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를 미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니 말이다. ❶

김현식 ·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문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중원대학교 특임교수이자 미래학회 연구학술인이며, 대표 저서로는 《문화로 읽는 세상》이 있다.



혁신적 디지털 기술, 도서관의 변화

이제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이다. 한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요란스럽게 주목받은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려는 기세로 다가오고 있다.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홈 등이 이 같은 전환의 사례들이다. 도서관도 디지털 전환에서 예외가 아니다.

글 이수상(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의 디지털 혁신 기술 3가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혁신 방향은 무엇일까? 지금껏 도서관의 스마트화를 위해 거론된 기술들은 클라우드(Cloud),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메타버스(Metaverse), 로보틱스(Robotics)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도서관에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동안 도서관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시맨틱 웹 기술도 포함된다. 도서관의 혁신을 주도하는 이 3가지 핵심기술의 적용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클라우드 기술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클라우드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적용 사례도 많다. 클라우드는 각종 디지털 기술을 소유에서 공유의 형태로 바꾸고 있다.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구축하여 공유하는 것, 소프트웨어(Software, SW)를 클라우드에 설치하여 공유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전자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이며 데이터센터라 한다. 후자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라고 한다.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경우,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SaaS형 SW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북미의 도서관 관계에는 2010년대부터 이러한 SaaS형 모델이 등장했으며, 특별히 LSP(Library Services Platform)라고 부른다. 기존의 통합 도서관 시스템(Integrated Library System, ILS)*이 LSP 모델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국은 일부의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도입하고 있다.

LSP는 도서관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위한 SW들이 탑재된 플랫폼이다. 도서관에서 클라우드의 적용은 이렇게 LSP 모델로 혁신하는 것이다. LSP 모델의 대표적인 미국의 도서관 솔루션 제공업체 엑스리브리스(ExLibris)의 'Alma' 솔루션의 경우, 현재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관리(Alma)와 통합검색(Primo, Summon), 아카이브(Alma Digital), 전자 자원관리(Alma ERM), 교과 독서리스트(Leganto), 연구 지원(Esploro), 자원공유(RapidILL)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은 IT 회사가 서비스를 제품으로 제공하고, 도서관은 구독으로 이용한다. 도서관이 SW들을 구입하여 자관의 서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산실의 유지나 운영에 부담이 없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SW의 설치와 사용 방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LSP 모델에 맞도록 SW를 재개발해야 한다. 국내의 LSP 솔루션 사례는 국내 업체인 두드림시스템의 '이젠터치(eGen Touch)', 채움씨앤아이의 'K-CLOUD'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 씨오가 '알파스(Alpas)'를 SaaS로 제공한다고 한다. 조만간 많은 제품이 등장할 것이며, 이러한 솔루션들은 플랫폼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

* ILS

목록 작성, 수서, 열람, 이용자 탐색, 데이터베이스 접근 등의 도서관 기능 모듈이 통합되어 이용자와 사용자가 공통된 인터페이스에서 이용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두 번째인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도서관 혁신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 그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도서관 정보검색의 혁신이다. 특정한 질문에 적합한 정보 자원을

찾아내는 검색이 아니라, 적합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자원의 검색이 아니라 적합한 지식의 생성을 추구한다. 현재 빙(Bing), 구글(Google), 네이버(Naver) 등 범용 검색 포털에서 실험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 소장하거나 접근 가능한 방대한 DB 콘텐츠를 학습하여, 이용자의 질의에 적합한 지식을 생성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AI 사서라고 해도 된다.

AI 사서가 생성하는 지식은 단답형 응답,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작품(문학, 논문, 이미지, 음성, 동영상, SW 코드 등), 문제 풀이의 결과 등이며, 인간이 지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정보 자원은 더 이상 검색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 생성의 토대가 된다. 검색을 위한 정보 자원의 색인화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지식 생성을 위해 학습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여 응답을 도출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결국 색인기와 검색기로 구성된 기존 검색엔진은 학습기와 응답기의 지식 생성 엔진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것 말고도 인공지능은 도서관 업무관리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인공지능 도서관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차세대 웹(시맨틱 웹)

세 번째 시맨틱 웹(Semantic web)은 차세대 웹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도서관에서는 FRBR(서지 레코드의 기능상 요건) 모델의 논의에서 시작하여 현재 LRM, RDA, BIBFRAME, LD 등의 관련 기술적 개념들로 구성된다. 중요한 것은 지난 50여 년 이상 지속된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 형식의 목록 레코드가 폐기되고, BIBFRAME¹⁾(Bibliographic Framework) 레코드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IFLA의 LRM(Library Reference Model)은 서지정보의 논리적 구조를 표현하는 개체-관계 모델이다. 이를 적용한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라는 목록 규칙을 사용하여, BIBFRAME 레코드를 생성한다. 이것을 XML 형식의 LD(Linked Data)로 변환하여 웹으로 공개하면, 여러 영역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은 웹(구글 등)에서 정보 자원을 검색하고, 특정한 도서관이 소장한 자원을 직접 대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해당 도서관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검색하고 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아직은 실제의 운영 사례가 나와 있지 않지만, 시맨틱 도서관으로 혁신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 도서관으로의 변신

인공지능과 시맨틱 기반의 서비스들은 LSP에서 구현될 것이다. 즉 SaaS로 구현되어 플랫폼 도서관의 기능으로 제공하게 된다. 도서관 플랫폼은 시맨틱 웹과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들로 인해 더욱 똑똑해지는 스마트 도서관으로 변신할 것이다. 여기에 각종 로봇 서비스들이 추가되고,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의 실감 기술이 도입되면 스마트 도서관은 스마트 사회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 자명하다. ❶

1 기존 데이터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MARC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서지 기술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임수안·이승민, 〈BIBFRAME 적용성 제고를 위한 서술적 수준의 분리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3), 165~186쪽, 2020년 8월

이수상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며, 디지털도서관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스마트 도서관을 연구하고 있다.

14 사서 큐레이션
뜨거운 더위를 식혀줄 7+8월 추천 도서

18 오늘의 만남
“까치와 저는 애증의 관계죠.”
만화가 이현세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제주의 사람과 글을 책으로 만드는 인큐베이터
‘제주 탐라도서관’

26 보물을 찾아서
스페인 국립도서관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BNE)과 《돈키호테》 초판

30 도서관 트렌드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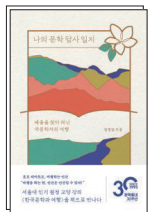


도서관을 만나다

뜨거운 더위를 식혀줄 7+8월 추천 도서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국내 문학



나의 문학 답사 일지

정병설 지음
문학동네 | 2023

“고요한 궁궐의 밤, 궁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궁궐의 개들이 덩달아 짖는다. 영조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글을 남겼다...”(118쪽)

《나의 문학 답사 일지》는 국문학자 정병설 교수가 대한민국 곳곳을 탐방하며 문학과 역사의 자취를 추적한 여행기이자 문학 안내서이다. 저자는 《춘향전》의 남원, 《탁류》의 군산 등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탐방하며, 작품 속 장면을 생생히 그려내는 묘사와 상상력으로 독자를 깊이 있는 여행의 세계로 이끈다. 문학에 대한 열정과 성찰이 돋보이는 이 책은 여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다가오는 여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지역과 관련된 문학작품 한 편쯤 찾아 읽어보면 어떨까. 여행에 재미와 깊이를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정병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한국문학과 여행'이라는 교양과목을 맡아 가르치고 있다. 매년 학생들과 답사를 다니며 남긴 관찰과 사유의 기록을 책으로 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철도원 삼대와 인천건기》 김경은, 남지현, 이설야, 장희숙, 조성면, 최원식 | 2023
《나의 손이 내게 말했다》 이정화 | 2023
《임시정부를 건다 대한민국을 건다》 김태빈 | 2022

국내 문학



노숙 인생

실뱅 테송 지음 |
백선희 옮김
뮤진트리 | 2024

“여전에는 길 때문에 느리게 갈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풍경 구석구석을 알았으며, 사고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었고, 시간적 여유는 있었으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33쪽)

작가 실뱅 테송은 이 책 《노숙 인생》에서 세계 각지의 다양한 특성들을 15개의 단편 소설을 통해 그려내면서 사람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 지향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자녀들을 위해 조지아의 시골 마을에 아스팔트 길을 만들길 원했지만 정작 그 길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사는 아버지, 40년 동안 러시아의 숲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황당한 결과를 맞게 되는 살인자, 기계화로 인한 영국 돼지 사육업자의 고뇌와 절망 등 각 단편 모두 세계 구석구석의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삶을 그려내고 있다. 세상이 절망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인생은 진실된 내면의 나와 직면해야 한다는 삶의 기본적인 진리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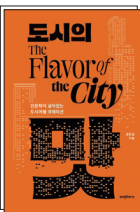
✎ 저자 소개

실뱅 테송(Sylvain Tesson) 작가이자 여행자이다. 전 세계 오지를 돌아다니며 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책을 집필했다. 《노숙 인생》으로 공쿠르상과 아카데미 프랑스 상을 수상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순례: 그 높고 깊고 아득한》 박범신 | 2023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 2022
《모순》 양귀자 | 1998

인문예술



도시의 맛

정희섭 지음
에이엡스토리 | 2024

“여행은 언제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열어준다. 오류는 수정되고 새롭게 저장되어 지식으로 쌓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여행자만이 얻을 수 있는 살아 있는 공부를 한다.”(82쪽)

도시 인문학자 정희섭이 40개국 69개의 도시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12개의 주제로 엮어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풀어냈다. 작가는 문화를 읽고 설명하는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도시여야 한다고 말한다. 도시는 하나의 문화를 발원시키는 주체이고 생명체이며, 문화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위인 것이다. 대도시의 그늘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멋진 이야기들로 가득한 도시가 많다. 마사이족이 사는 땅 마사이마라(케냐), 평화를 갈구하는 선지자의 숨결이 담긴 항구 도시 하이파(이스라엘)처럼, 잘 알지 못했던 작은 도시들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중간중간 삽입된 여행 관련 명언들도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설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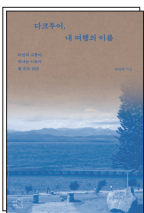
✎ 저자 소개

정희섭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도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더 많은 이가 진정한 도시의 미학을 느낄 수 있도록 인문학이 살아 있는 도시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시티도슨트: 도시학자와 떠나는 세계도시기행》 강우원 | 2023
《도시 인문학》 노은주·임형남 | 2020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 2015

인문예술



다크투어, 내 여행의 이름

양재화 지음
어떤책 | 2023

“나는 그제야 ‘희생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진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각자의 우주를 품은 한 개인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128쪽)

‘다크투어리즘’은 인간사적, 역사적으로 어두운 사건을 따라가는 여행을 뜻한다. 저자는 다양한 다크투어의 주제 중에서도 ‘제노사이드’, 즉 집단살해(대학살)의 현장을 여행한다. 20세기 최초의 제노사이드 현장인 아르메니아부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캄보디아와 보스니아,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저마다 다른 종교와 역사를 지녔지만 비슷한 아픔을 지닌 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다. 10여 년간 전 세계 학살의 현장을 찾아 나선 저자는 마지막 여행지 제주4.3평화기념관에 와서야 자신이 떠난 여행의 의미를 깨닫는다. 다크투어란, 결국엔 사라진 개인의 얼굴을 마주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을 말한다. 인류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면, 이 책을 따라 떠나보기를 추천한다.

✎ 저자 소개

양재화 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12년간 세계 제노사이드 현장을 여행하고 이후 6년간 《다크투어, 내 여행의 이름》을 썼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 2021
《다크 투어, 슬픔의 지도를 따라 걷다》 김영정 | 2021
《제노사이드》 최호근 | 2005

인문예술



지리학자의 열대 인문여행

이영민 지음
아날로그(글담) | 2023

“알게 모르게 뿌리박혀 있는 열대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두고 있는 그대로의 열대에 주목해 보자. 새로운 것들이 비로소 보일 것이고, 새로운 생각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다.”(35쪽)

열대지역은 신비로운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동식물을 볼 수 있어 매력적이지만, 난도가 높은 여행지라는 인식이 있어 선불리 떠날 엄두를 낼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인문지리학자인 저자는 1984년부터 열대를 여행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열대는 원시의 지상낙원이라는 편견에서 탈피하여 독자들이 진정한 열대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열대를 소개한다. 열대에 대한 이미지, 열대의 지리적 특성과 열대지역의 기후, 여러 지역에 분포한 세계의 열대, 열대의 문화 석임과 역사, 현지인의 삶, 우리 역사 속의 열대 등을 실제 여행 경험과 함께 흥미롭게 풀어낸다. 또한 중간중간의 부록에서 열대 여행 계획자들을 위한 열대 여행 시기, 안전 관련 내용도 전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열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저자 소개

이영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대학원 다문화·상호문화 협동과정/아시아 여성학 협동과정도 가르친다. 장소와 사람, 그리고 문화의 관계를 밝히는 인문지리학을 연구한다. 특히 글로벌 이동성, 장소 재구성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과 행복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컬렉터처럼, 아트투어》 변지애 | 2023
《지리학자의 인문여행》 이영민 | 2019
《땅의 문명》 남영우 | 2018

인문예술



이토록 우아한 제로 웨이스트 여행

신혜정 지음
사우 | 2023

“제로 웨이스트 또는 레스 웨이스트라는 좋은 말은 현실에서는 사소하고 번거롭고 귀찮고 티도 나지 않는 노력이 된다. 아주 작은 것을 위해서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내 삶과 터전을 가꾸어가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155쪽)

《이토록 우아한 제로 웨이스트 여행》은 1년 반 동안 유라시아 대륙 1만 2,500km를 자전거로 여행하며 얻은 깨달음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도시락통, 물병, 빵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되도록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으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각 나라의 쓰레기장이나 재활용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현대사회의 과도한 소비문화와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경험한다. 또 긴 여행에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배운다. 진정한 풍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경험과 성장에서 온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행과 자기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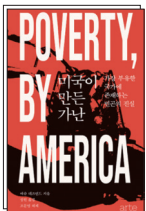
✎ 저자 소개

신혜정 기후 대응 NGO에서 퇴사 후 자전거로 여행하며 사람, 문화,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했다. 이후 환경교육 석사과정을 거쳐 여러 단체에서 기후 대응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홍수열·고금숙 | 2022
《기후위기인간》 구희 | 2023
《텀블러로 지구를 구한다는 농담》 알렉산더 폰 진부르크 | 2023

사회과학



미국이 만든 가난

매슈 데즈먼드 지음 |
성원 옮김
arte(아르테) | 2023

“가난은 범죄, 건강, 교육, 주택 등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든 사회문제와 관계되어 있다.”(62쪽)

《미국이 만든 가난》은 미국의 역설을 보여주는 진실 여행이자 한 사회의 빈곤을 이해하는 지적 여행이다. 저자는 가난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질문하며 시작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담을 쌓고 그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가난의 사회적 측면, 임대주택 정책이나 저임금 노동으로 빈곤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측면을 고찰한다. 대안으로는 담을 허물어 공동체 생활이 양질의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본다. 가난을 종식하기 위해 GDP의 1%인 1,770억 달러를 불량 납세자에게서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MZ세대와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에 관한 통찰력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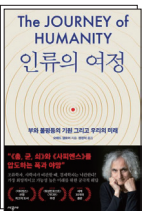
📖 저자 소개

매슈 데즈먼드(Matthew Desmond) 사회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로, 대표작 《쫓겨난 사람들》로 ‘워싱턴 포스트’ 등 매체 20여 곳에서 2016년 최고의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논픽션 부문 풀리처상을 받았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세계의 종말을 늦추기 위한 아마존의 목소리》 아이우통 크레나키 | 2024
《여행이라는 일: 여행으로 즐기고 일하는 덕업일치의 삶》 안시내 | 2023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 2023

사회과학



인류의 여정

오데드 갈로어 지음 |
장경덕 옮김
시공사 | 2023

“인류의 여정을 지배했던 거대한 변화의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가므로, 성평등과 다원주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미래 지향성을 강화하고 교육과 혁신역량을 키우는 조치는 보편적 번영의 열쇠가 될 것이다.”(277~278쪽)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에서 21세기의 현생인류까지, 인류가 걸어온 기나긴 여정으로 초대하는 책. 경제학자 오데드 갈로어는 이 책에서 인류의 전 과정을 조망하며 인류 발전 과정 속 드러나지 않은 힘들을 탐구한다.

1부는 시간에 따른 인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인류의 뇌에서 일어난 진화, 두 차례의 기법비적인 혁명인 신석기혁명과 산업혁명, 인적자본의 투자 증대를 통해 맬서스가 내놓은 빈곤의 덫에서 벗어난 인류의 성장에 대해 설명한다. 2부는 부와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따라 인류의 역사를 고찰한다. 인류의 부와 불평등이 제도적·역사적·문화적·지리적 요인과 더불어 변화해 온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여나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저자 소개

오데드 갈로어(Oded Galor) 브라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통합성장 이론’의 창시자이다. 경제학자로서 일생을 바쳐 얻은 통찰을 세계 각지에 공유했으며, 《인류의 여정》은 갈로어의 첫 책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출판됐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빅 히스토리》 데이비드 크리스천 외 | 2022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바츨라프 스미 | 2023
《부의 빅 히스토리》 마크 코야마 외 | 2023

사회과학



프랑스의 음식문화사

마리안 테벤 지음 |
전경훈 옮김
니케북스 | 2023

“프랑스 음식의 역사는(식도락을 의미하는) 가스트로노미도 아니고, (식재료의 환경적 요소를 의미하는) 테루아르도 아니고, 농민도 아닌, 이 모든 것이다. 그것은 절대 단일체가 아니라, 겹겹이 쌓인 층이다.”(494쪽)

미식가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여행지 프랑스. 프랑스는 어떻게 미식의 나라가 되었을까?

방대한 프랑스 음식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는 이 책은 총 8장에 걸쳐 각 시대의 사건과 인물들이 프랑스 요리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 고대 갈리아 시대부터 빵 문화를 형성한 중세 시대, ‘프랑스의 미식’이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 목록에 오르게 된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의 음식 문화사를 다룬다. 특히 6장 ‘문화적 시금석’에서는 문학작품과 영화에서 나타나는 프랑스 음식의 이미지와 실제 현실과의 차이, 그리고 이를 통해 전달되는 문화적 메시지를 통해 프랑스 음식이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 저자 소개

마리안 테벤(Maryann Tebben) 불문학과 행정학을 공부하고,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불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매사추세츠 사이먼 루스 바드 칼리지에서 불문과 교수이자 음식문화사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프랑스 음식 여행》 배혜정 | 2024
《프랑스 요리의 모든 것: 프랑스 전통요리부터 각 지방 과자까지》 오모리 유키코 | 2023
《밥상 위에 차려진 역사 한 술갈: 역사 속 한 끼 식사로 만나는 음식문화사의 모든 것》 박현진 | 2018

사회과학



경성 맛집 산책
: 식민지 시대 소설로 만나는 경성의 줄 서는 식당들

박현수 지음
한겨레출판 | 2023

“그런데 이곳에서 파는 음식 가운데는 서양 음식, 일본 음식, 심지어 중국 음식까지 있었지만 조선음식은 없었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백화점에 자리 잡은 식당이었지만, 이곳에서도 식민지라는 멍에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70쪽)

일제강점기 경성에도 줄 서는 맛집이 있었다.

이 책은 조선 최초의 서양 요리점 ‘청목당’을 비롯해 경성 유일의 정갈한 조선 음식점 ‘화신백화점 식당’, 고급 승용차가 즐비했던 중화요리점 ‘아서원’ 등 경성의 줄 서는 맛집 10곳을 소개하고 있다. 맛집 지도와 삽화, 사진 자료가 풍부해 여행 안내서로도 손색이 없다.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 심훈의 《불사조》 등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맛집을 통해 그 시절 맛집을 대표했던 메뉴들과 그곳의 외관과 내부, 독특한 시스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소설 속 인용문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책에서 소개한 맛집 거리가 현재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 저자 소개

박현수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 근대소설의 양가성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학부대학 대우교수로 일하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라이더, 경성을 누비다: 식민지 조선이 만난 모던의 풍경》 김기철 | 2023
《맛있는 소설》 이용재 | 2023
《식민지의 식탁》 박현수 | 2022

자연과학



우리가 우주에 가야 하는 이유
: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우주 경제의 내일까지

폴윤 지음
EBS Books | 2023

“NASA는 우주 과학 탐사를 통해 지구를 더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과거 금성 탐사로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달과 화성 탐사를 통해 지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114쪽)

《우리가 우주에 가야 하는 이유》는 ‘내일의 우리’를 위한 ‘오늘의 우주’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태양계 홍보대사 폴윤 교수가 과학기술과 산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우주를 보게 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주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일깨운다. 일례로 국제우주 정거장의 기능은 우주 탐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신약 개발, 재사용 로켓 산업과 다양해지는 위성 서비스까지 우주를 무대로 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늘의 우주’를 기반으로 우주 관광, 새로운 달 탐사 아르테미스 미션, 인간의 화성 거주 가능성에 도전하는 화성 인간 탐사 등 다양한 ‘내일의 우리’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주에 대해 알아야 할 때이다. 우주에 대해 배워보고 우리가 우주로 여행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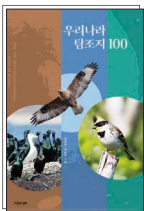
📖 저자 소개

폴윤(윤명현)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 태양계 홍보대사이자, 엘카미노 대학(EI Camino College) 수학과 교수이다. 지구인이 알아야 할 우주 교양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우리 우주》 조 던클리 | 2021
《지구인의 우주공부》 이명현 | 2021
《우주여행 무작정 따라하기: 어쩌다 시작된 2주 동안의 우주여행 가이드북》 에밀리아노 리치 | 2024

자연과학



우리나라 탐조지 100

김성현·최순규 지음
자연과생태 | 2024

“[신진도의] 마을 뒤 습지로 들어가면 노랑눈썹솔새, 검은딱새, 유리딱새, 흰눈썹솔새, 개개비 같은 작고 앙증맞은 녀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탐조객을 맞는다.”(112쪽)

새는 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 책은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 접근성, 계절에 따른 조류의 종류 등을 설명하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조류 관찰에 최적화된 100개의 장소를 상세히 설명한다. 소개한 장소들 중 일부는 명소이거나 보호구역이지만 덜 알려진 숨은 보석과 같은 곳들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탐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좋은 탐조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새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조류 관찰이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운다. 🌿

📖 저자 소개

김성현 맹금류를 비롯한 철새의 이동과 분포 등을 연구한 이학박사다.
최순규 멸종 위기 조류의 행동 및 생태 등을 연구한 산림학박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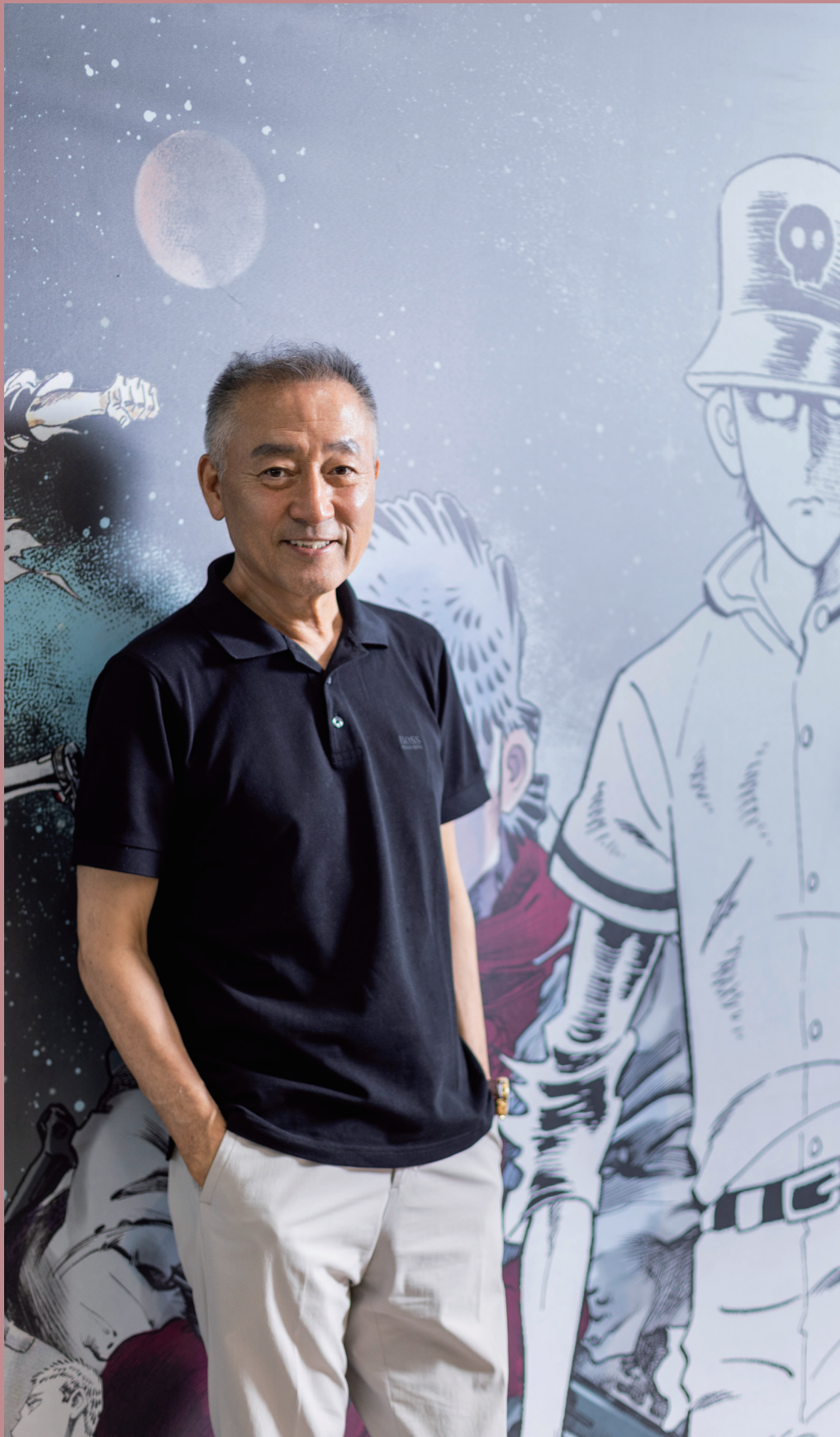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탐조일기》 삼사롱 | 2023
《인문학자가 보여주는 새 이야기, 인간 이야기》 서정기 | 2020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 조병범 | 2020

“까치와 저는 애증의 관계죠.” 만화가 이현세

이현세(68)는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 만화의 황금기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다. 《공포의 외인구단》과 까치라는 캐릭터로 만화 붐을 일으킨 만화계의 살아 있는 거장 이현세. 한 번도 그림 그리기가 일로 느껴진 적이 없었다는 그에게, 그의 작품 세계와 대표 캐릭터 까치의 탄생 비화에 대해 물었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50년째 만화를 그리고 있고요. 세종대학교에서 30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객경택 감독이 쓴 〈명품시대〉라는 시나리오 원작을 가지고 저는 웹툰 작업을 하고 객 감독은 드라마로 만드는 투트랙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려온 만화 중에 독자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작품으로는 《공포의 외인구단》, 《지옥의 링》, 《아마게돈》, 《남벌》, 《블루엔젤》, 그리고 《천국의 신화》가 빠질 수 없겠죠. 말썽도 많았고, 제 작품들 중에서 가장 장편이기도 하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현세의 길: K-웹툰 전설의 시작 특별전〉 전시가 7월 31일(수)까지 진행됩니다. 전시를 하게 된 소회와 전시회를 접한 관람객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자신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전시를 보니 그동안 걸어왔던 오랜 시간이 실감나더라고요. 그 먼 길을 열심히 잘 와줬구나 하며, 저 자신에게 먼저 박수를 쳐줬습니다. 수고했다고요. 전시를 보신 분들의 반응은, 이현세의 만화의 길을 보러 왔는데 그 안에 한국 만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보여서 재미있다고들 하셨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한국 만화사의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요.

대표작인 《공포의 외인구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작품과 대표 캐릭터 까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요?

까치라는 캐릭터는 《까치의 제5계절》이라는 제 자전적 만화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아웃사이드이면서 폭탄 같은 인물이죠. 보통 청춘들이 결핍과 방향, 분노, 자유,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시절 청춘들은 더욱 그런 것들을 원했죠. 까치라는 캐릭터가 그런 점을 파고들며 그 시대 청춘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대 상황도 크게 반영한 작품입니다. 작품이 나왔을 당시가 1980년대니까 탱크가 대학교 교정에 주둔했을 때거든요. 그때 즐길 거리로 프로야구가 있었죠. 그런데 ‘프로’는 자기 연봉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야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훨씬 입체감이 있어지죠. 암울한 시대에 야망이 더해져 탄생한 이야기가 바로 《공포의 외인구단》이에요.

선생님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주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그림체인지 궁금합니다.

그림체 만든 이야기는 좀 재미있습니다. 제가 원래 액션 만화를 그리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 작가 선생님들께는 다

퇴짜를 맞고 문하생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었어요. 겨우겨우 들어간 데가 순정만화를 그리는 선생님 밑이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랑개그만화를 하시는 선생님한테서 또 그림을 배운 거예요. 그 후에 제 작품을 하려고 나오니까 액션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게, 그 세 영역을 다 포함해서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정말 풍요로운 스토리를 쓸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당시만 해도 순정만화, 명랑만화, 액션만화 등으로 장르가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욕심스럽게 그 세 가지를 다 합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림에 세 가지 표현을 다하면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이 인물들이 한 인물로 보여야 하니까 무언가 특별한 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틀을 까치 머리로 쓴 거죠. 연애할 때는 순정만화의 여자주인공처럼 서글픈 눈을 그려 넣고, 액션 장면일 때는 정말 호랑이 같은 무시무시한 얼굴을 그리죠. 그 위에 까치 머리를 얹어서 동일한 인물로 만든 거예요.

한국 만화는 《공포의 외인구단》이 등장하기 전과 후로 나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만화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작품의 성공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연의 산물이죠. 저는 세상의 대다수 업적은 우연이 90%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순정만화 작가님한테 예쁜 그림을 배우려고 일부터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전부 퇴짜를 맞아서 그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명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제가 전략적으로 순정만화와 명랑만화를 배워서 그걸 종합해 어떤 걸 만들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단지 그 과정을 통해 우연히 제가 한국에서는 가장 표현력이 넓은 만화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스토리 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가 중 한 명이 되었고요. 작가들이 본인의 스토리가 성공해야 하니까 스토리의 주인공을 거의 까치와 엄지로 만들어서 대본을 썼고, 그것이 모두 저한테 왔죠. 전부 우연이었고 운명적이었습니다.

까치 캐릭터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까치는 만화가님의 초상이라고요.

까치는 저와 닮은 부분이 아주 많아요. 까치뿐 아니라 모든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모든 작가의 캐릭터는 그 사람의 초상이에요. 작가들 대다수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먹고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까치는 아직까지도 많은 독자 곁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까치는 만화가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많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때는 아주 많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캐릭터인데 어느 날 이 까치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만약 제가 서민의 삶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화풍이라는 게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까치와 비슷한 캐릭터를 얹어놓으면 독자는 까치가 폭탄 이미지니까 언젠가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서민의 삶이라는 게 그냥 조용히 사그라드는 거지 사고 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이 만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젠 이현세 만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까치는 어디에 얹혀봐도 이미 사고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스토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저에게는 한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손으로 그림을 그리신다고요.

채색이나 편집은 디지털의 도움을 안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원화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장인의 자부심이지요. 작업 방식을 따졌을 때 저는 원화를 가지고 있는 이 작업이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 훨씬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인공지능(AI)이 작가들이 그리는 수준만큼 그리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을 한 사람의 작품이 이야기 산업에서 벗어나 예술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작업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원고 마감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지금도 그리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지요. 예전 같지 않게 손목의 지구력이나 눈의 지구력 같은 게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항상 알람을 1시간마다 울리게 맞춰놓아요. 눈이 쉬는 시간이지요. 안 그러면 눈이 벌게질 때까지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집중력은 좋습니다. 한 번도 만화를 그리면서 후회해 본 적이 없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림을 그리는 건 저한테 놀이였지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나요?

초등학교 2학년 미술 수업에 정물화를 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꽃병을 놓고 그리는 거였는데 저는 한 2분 정도 그리니까 그냥 꽃병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애들을 보니까 1시간 내내 지우개로 지워가며 하는 데도 대칭도 안 맞고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관찰하는 기억력과 묘사하는 재생 능력이 다른

애들보다 월등하게 낫다는 걸 알았죠. 작가 선생님들의 문하생으로 들어가서도, 그때 당시에는 독학으로 배워야 하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필사였거든요.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 거죠. 제가 필사를 해보니 남들은 한 달 정도 걸릴 일을 저는 한 3일 만에 베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화를 계속 그려야겠구나 생각했죠.

평소 책은 즐겨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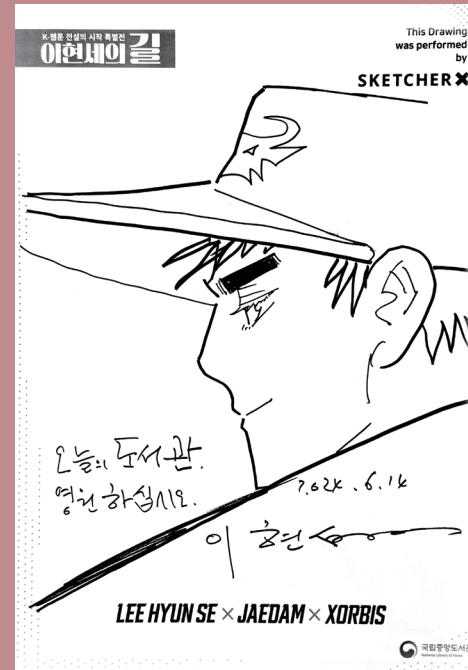
저는 만화보다는 일반 서적을 더 많이 읽습니다. 소설도 읽지만 인문 서적을 더 많이 읽고 즐기구요. 인문학 서적에서는 영감도 얻지만 소재나 캐릭터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도움을 못 받겠더라고요. 그게 아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는 상영 시간 동안 감독이 끌고 가는 데로 빨리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인문학 서적은 읽으면서 가만히 사고하게 해주니까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해안에 사는 늙은 어부의 삶을 그리려면, 동해안에서 40~50년 오징어만 잡은 노인보다 더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독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서보다 더 강한 경쟁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AI가 우리 삶에 들어오면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경쟁력이잖아요. 그 역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 독서를 위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세 •

1983년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이현세 붐'을 일으킨 우리나라 만화계의 살아 있는 거장이다. 대표작으로는 《지옥의 링》, 《아마게돈》, 《남벌》, 《사자여 새벽을 노래하라》, 《머느리 밥풀꽃에 대한 보고서》 등이 있다. 현재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현세 만화가가 《오늘의 도서관》 독자를 위해 그려준 그림

까치는 저와 닮은 부분이 아주 많아요. 까치뿐 아니라 모든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모든 작가의 캐릭터는 그 사람의 초상이에요. 작가들 대다수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먹고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죠.



만화가 이현세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사람과 글을 책으로 만드는 인큐베이터 ‘제주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은 제주국제공항에서 6km 떨어진 제주 시내에 자리한다. 도서관 반경 1~2km 내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 연중 내내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개관 이후 30여 년간 도민들과 함께 성장하며 지식의 요람이 되었던 탐라도서관이 또 한 번 진화했다. 제주의 사람과 글을 책으로 만드는 ‘출판 인큐베이터’로 거듭나는 중이다.

취재 전설 사진 안호성



녹음에 둘러싸인 탐라도서관 전경

제주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

1989년 6월 개관한 탐라도서관은 제주 최초로 현대식으로 지어진 우당도서관(1984년 2월 개관)에 이어 두 번째로 개관한 공공 도서관이다. 제주한라대학교를 마주 보고 있으며 지척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제주 시내에서 자란 이에게는 모교보다 친숙한 장소로 불린다. ‘제주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유도 이런 지리적 접근성 덕분이다.

“제주 시내에 자리하고 있어 차 없이도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요. 도서관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데 특히 1층 문헌정보관 창가 자리가 늘 인기예요. 통창 너머로 야외 정원이 시원하게 내다보여 이런 게 ‘제주의 도서관’이구나 실감할 수 있어요.”

탐라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됐다.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 문헌(향토, 참고)자료실, 특별열람실, 자유열람실, 실버실이 있으며 2층에는 성인열람실, 디지털자료실 3층에는 어린이 청소년 열람실이 있다. 도서관 외부 솔밭에는 야외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소풍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아름드리 벚나무가 늘어선 탐라도서관 뒷길은 도민만 아는 로컬 벚꽃 명소로 유명하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구석구석 볼거리가 넘쳐난다.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자세히 오래 볼수록” 예쁘다. 그런데 이런 탐라도서관을 설명할 때 경관이나 접근성 외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독립 출판’이다.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독립 서점도 많지만

제주에는 마을마다 특색 있는 독립 서점과 책방이 많기로 유명하다. 2015년부터 ‘한 달 살기’ 등 체류형 여행 열풍이 불면서 마을마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책방이 하나 둘 생겼는데, 지금은 100여 곳에 이른다. 작은 책방만 모아둔 여행 지도(〈책방올레지도〉)가 따로 있을 정도다. 지역 내 독립 출판물을 취급하는 공간과 사람이 많다 보니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이 정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느껴진다. 탐라도서관 열람팀 오경훈 팀장은 제주독립출판 특화도서관을 운영하는 배경에는 독립 출판 관계자들과 담당 사서의 꾸준한 노력과 소통이 있었다고 말한다.

“2018년에 탐라도서관 주관으로 〈탐라전국지역출판도서전〉이란 도서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형 출판사의 그림자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한 도서들을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와 정서의 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목적이었죠. 이 과정에서 독립 출판 관계자들이 탐라도서관으로 모이게 되었고 일종의 공생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많은 신진 작가가 제주로 이주하기 시



사서의 추천 도서로 운영되는 북토리(Booktory) 코너



통창 너머로 보이는 도서관 야외 정원

탐라도서관

이용 시간

- 열람실: 오전 8시~오후 11시
- 문헌정보관: 주중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 참고·향토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 매주 금요일, 설날·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12월 31일, 1월 1일

주소 제주도 제주시 정원로 50(노형동)

전화번호 064-728-1506



지역별 출판 도서를 모아놓은 특화 서가



2023년 제주독립출판 특화도서관 출간기념회

작했고, 우수한 콘텐츠들이 제작되면서 지역 책방이 활성화됐어요. 독립 출판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져 ‘독립 출판’을 주제로 여러 특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탐라도서관은 2020년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독립 출판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해 나갔다. 지역별, 테마별로 독립 출판물 특화 서가를 구축하고 2,600여 권의 독립 출판물을 비치했으며, ‘제주독립출판 제작’, ‘제주 출판 학교’, ‘제주북페어’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명실상부 ‘독립 출판 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도서관이 독자와 작가의 경계를 허무는 법

탐라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한 ‘2023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전에서 ‘독자와 작가의 경계를 허물다: 제주독립출판 특화도서관 운영’ 현장 사례로 국립중앙도서관장상(장려상)을 수상했다. 탐라도서관은 어떻게 독자와 작가의 경계를 허물었을까.

“독자가 자신의 책을 기획하고 쓰고 원고 편집 및 인쇄를 거쳐 독립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한 권의 책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작가와 독자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 유명 인사나 특정 직업군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책을 내고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총 18분의 작가님이 85권의 책

을 출간했는데, 모든 작품이 개성 있고 몇 개월 만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품성도 높습니다. 이런 책들이 많은 분께 읽힐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주독립출판 특화도서관’ 사업을 담당하는 강지원 사서는 출간작 중 인상 깊었던 작품으로 《우리는 모두 집에 산다》와 《안녕, 크론씨》를 꼽았다. 《안녕, 크론씨》는 크론병을 앓는 고윤아 간호사의 투병기를 담은 책으로, 이후 《병실로 퇴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재발간되어 전국 독립 서점에 비치되었다. 저자인 고윤아 작가도 북 토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이외에도 누군가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잠들어 있던 개인적인 기록물들이 탐라도서관의 의지에 힘입어 세상에 출간되었다. 탐라도서관이 18명의 저자를 키워낸 셈이다.

독립 출판물과 함께 뛰어노는 책 축제

탐라도서관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전국 최초의 독립 출판물 박람회 ‘제주북페어’를 자체 운영 중이다. 국내의 독립 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 독립 서점 200여 팀의 출판물을 전시·판매하고 관련 세미나도 진행한다. 단순히 독립 출판물을 판매하는 데서 나아가 세미나 및 워크숍과 테마형 전시를 기획해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올해 ‘제주북페어 2024 책운동회’에는 443팀(국내 434팀, 국외 9팀)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수많은 팀 중 홍콩을 기반으로

한 해외 독립 출판팀 ‘ZINE COOP’가 인상적이었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 출판물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어 더욱 뜻깊었어요. 매년 신청팀이 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탐라도서관은 다가올 2025년 제주북페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실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동시에 도서관 특화사업 목표를 ‘책 만들기’에서 ‘글쓰기’로 새롭게 정하고 독자들의 글쓰기 체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좋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책을 잘 만드는 편집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 스스로 좋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집필하는 글쓰기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탐라도서관은 제주독립출판 특화사업을 4기까지 운영하며 글쓰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독립 출판 특화도서관’에 이어 ‘글쓰기 특화도서관’으로 역할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책을 읽고 쓰는 제주 독서 생태계가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탐라도서관에서는 또 어떤 저자가 배출될까. 독립 출판물 전용 서가를 가득 채울 그들의 책들이 기대된다. ❷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북페어 2024 책운동회



탐라도서관 제주독립출판 특화도서관 사업 담당

오경훈 팀장(사진 오른쪽)

탐라도서관은 독립 출판물 코너를 따로 운영합니다. 독립 출판물 1,020권, 그래픽노블 545권, 강원도·경기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충청도 6개 지역 출판물 1,100권까지 약 2,600권을 소장 중이죠. 수치로 모든 것을 집계할 수는 없지만, 이만큼 독립 출판물에 진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제주에 올 일이 있다면 탐라도서관에도 들려주시길 기원합니다.

강지원 사서(사진 왼쪽)

앞으로는 ‘독립 출판 특화도서관’에서 의미를 확장해 ‘글쓰기 특화도서관’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독립 출판 관련 행사가 열리는 걸 보면서 책과 출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실감해요. 이런 상황에서 출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글쓰기’에 집중해 더 많은 독자가 책을 읽고 쓰는 즐거움을 느낄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페인 국립도서관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BNE)과 《돈키호테》 초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유일한 것은 도서관의 위치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그가 들려줄 수 있는 무수한 지혜와 조언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대신했다. 사람마다 처한 위치와 환경은 다르지만, 도서관을 찾는다면 때마다 적합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니 가히 현답이다. 이는 여행자에게도 유효하다. 여행지에서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한다면, 단연 도서관이다. 게다가 그곳이 마드리드라면 더욱 그렇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그리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도서관에는 어디서든 통하는 지혜가 널려 있다.

글 김윤아(서점 여행자의 노트) 저자 사진 위키피디아

최초와 공공으로 국가의 중심이 되다

스페인 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은 마드리드 중심부인 레콜레토스 대로에 있다. 이곳은 마드리드의 주요 광장을 연결하는 거리로, 산책을 하기에 좋고 국립 고고학 박물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함께 관람하기에도 제격이다. 도서관은 외관부터 볼거리다. 네오클래식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은 웅장한 기둥과 우아한 파사드로 국립도서관의 역사와 위엄을 드러낸다. 건물 앞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모두 스페인 조각가의 작품이다. 스페인의 역사와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하고 흰색 대리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스페인의 현왕으로 불리는 알폰소 10세, 학자이자 주교였던 성 이시도루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의 동상 등이 세워져 있다.

건물 정중앙에는 평화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시·음악·건축·조각·문헌학 등의 형상과 왼쪽에는 철학·법학·신학·천문학 등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다. 그야말로 스페인의 건축미와 예술성을 대표하는 곳이다.

도서관의 역사는 유구하다. 1712년 개관하여 300년이 넘었다. 국왕 펠리페 5세가 처음 왕립 공공도서관(Biblioteca Pública de Palacio)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이래, 1716년 '모든 학자'에게 문을 여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했고, 최초로 납본 제도를 시행하여 스페인 전역에서 방대한 책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또한 스페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책에 대해 선매권을 부여받으며 공공도서관만의 권위 있는 컬렉션을 갖추어 갔다. 1836년 도서관이 국왕 소속에서 행정부 소속으로 변함에 따라 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이라는 공식적 지위를 확보했고, 1985년에

는 국립신문도서관, 히스패닉 서지연구소, 다큐멘터리센터가 도서관에 통합되며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1892년 현재 건물인 파세오 데 레콜레토스(Paseo De Recoletos)가 건립되었으며, 스페인 최대 규모답게 마드리드 인근 위성도시인 알칼라데에나레스에 분관을 두고 방대한 컬렉션을 축적하고 있다.

최고와 최대로 세계의 중심이 되다

오늘날 도서관의 소장품은 2,600만 점이 넘는다. 책과 문서 1,500만 점, 그림 450만 점, 음성 자료 60만 점, 악보 51만 점, 전자문서 9만 점, 필사본 3만 점에 달하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의 대표적인 8곳의 자료실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세르반테스의 이름을 딴 자료실(Sala Cervantes)에는 세르반테스의 원고를 비롯하여 스페인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문서와 회귀본, 골동품, 1500년 전에 인쇄된 서적인 인큐네불라(Incunabula) 등이 보관되어 있다. 스페인의 화가인 고야의 이름을 딴 방(Sala Goya)에는 그림과 판화 등이 있고, 바르비에리 자료실(Sala Babbrieri)에는 악보, 음원, 음악 전문 서적, 전문 잡지, 작곡가 전집, 해외 악보 자료, 시청각 자료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와 함께 언론잡지실과 서지정보실, 도서관문서실도 갖추고 있다.

인큐네불라는 3,000여 권에 달하고 고야의 그림과 알브레히트 뒤러의 판화, 400곡이 넘는 노래가 포함된 중세 코덱스 등 귀중한

1 1891년에 제정된 국립도서관 및 박물관의 조각상 제작을 위한 산페르난도 왕립미술아카데미의 규정



스페인 국립도서관 내부 ©Shutterstock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 모습 ©Shutterstock

《돈키호테》의 초기 스페인어판

자료들 가운데 흥미로운 작품은 스페인의 의사이자 학자였던 산티아고가 쓴 초콜릿에 관한 가장 오래된 책 《초콜릿에 관한 대화 (Un Discurso del Chocolate)》이다.² 발간된 지 올해로 400년이 된 이 고서는 초콜릿을 과학, 요리, 문화, 경제 등 다채로운 관점으로 품이 있게 담아냈다. 그리고 도서관을 대표하는 보물이라면, 당연히 미겔 데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의 소설 《돈키호테(Don Quixote)》의 초판이다.

세계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 400년 전 출판된 최초의 현대소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5억 부의 판매고를 기록한 베스트셀러³. 그야말로 세계 최초, 최고, 최대의 수식어를 모두 보유한 책이다.

《돈키호테》는 1605년 1월 《라만차의 비범한 이달고 돈키호테 (El ingenioso hidalgo Don Quixote de la Mancha)》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직후, 유명해져 다양한 언어로 연달아 출판된다. 도서관은 초기 스페인어판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28권만 남아 있다. 초기 인쇄본에는 오타가 빈번한데, 당시 출판 시장의 열악한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⁴ 이후 오타자를 수정한 두 번째 판이 나왔고, 다양한 버전과 후속판이 출시되며 품질도 향상됐다. 실제로 《돈키호테》는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1605년 리스본과 발렌시아, 1607년 브뤼셀, 1610년 밀라노 등지에서 출판되었고, 이들 역시 전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돈키호테》를 포함해 세르반테스 연구 작품, 강의, 참고문헌 등을 아우르며 수집한 덕분에 도서관 속 《돈키호테》, 동시에 《돈키호테》도

서관이라는 위상을 갖추게 된다.

4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돈키호테》의 인기는 뜨겁다. 한 번쯤 현실을 바꾸고 싶은, 자아를 발견해 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모험이라는 주제는 시대를 막론한 평생의 화두거니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며 나아가는 주인공에 대한 응원과 공감은 인생사를 경험할수록 깊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키호테》의 핵심 신조입니다.” 《돈키호테》를 연구한 일란 스타반스(Ilan Stavans)⁵ 교수의 말처럼, 《돈키호테》는 우리 삶에 필요한 위로이자 격려이다.

《돈키호테》의 정신, 오늘 다시 최초와 최대를 쓰다

스페인 최초로 납본을 도입한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오늘도 한결 같다. 스페인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² Santiago de Valverde Turices

³ <https://www.worldatlas.com/articles/best-selling-books.html>

⁴ <https://www.bne.es/es/colecciones/cervantes/ingenioso-hidalgo-don-quixote-mancha>

⁵ <https://www.npr.org/2015/09/08/438633625/don-quixote-speaks-to-the-quality-of-being-a-dreamer>
https://www.ted.com/talks/ilan_stavans_why_should_you_read_don_quixote?awesm=on.ted.com_9IJ5&language=ko

추방되었거나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작가들의 작품을 구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한다. 올해 2월에는 스페인 도서관 최초로⁶ ‘키퍼스 레지스트리(Keepers Registry-디지털 콘텐츠를 보존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해 디지털 컬렉션을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소장 중인 서적, 인큐네블러, 원고, 악보, 그래픽 자료를 아우르는 컬렉션에 대한 연구와 보존, 전파와 홍보에 힘쓰며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문서들은 디지털로 관리해⁷ 단 세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자료를 다룬 받을 수 있게 한다.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위치는 가상에서도 한결같아야 하며, 모든 사람이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스페인어 웹 아카이브(Spanish Web Archive)를 제작해 인터넷상에서 스페인 관련 다큐멘터리 유산을 보존하고, 관련 웹사이트(블로그, 포럼, 문서, 이미지, 비디오 등 포함)를 제작하여 스페인의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 풀어내고 있다.

여행의 도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국립도서관에 가야 할까 묻는다면 주저 없이, 그렇다. 책이 있는 곳에서 언어가 유창하지 못함을 걱정한다면, 여행도 같지 않던가.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고 느끼고 감동하기 위해 가는 것이니까. 300여 년의 역사는 몇 권의 책이나 몇 곳의 공간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깊이있는 기획과 연륜을 더해가는 컬렉션, 성장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의 오늘 자 버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보고 느끼고 감동하는 여행자로 완성되는 오늘날 도서관의 특별판이 되는 곳, 여기는 스페인 국립도서관이다. ⑥



《돈키호테》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⁶ <https://www.bne.es/es/noticias/biblioteca-nacional-espana-bne-es-primera-biblioteca-espanola-adherirse-keepers-registry>

⁷ <https://www.cenl.org/the-bne-releases-more-than-30-million-images-for-all-use-el-cantar-de-mio-cid-don-quixote-and-the-manuscripts-of-da-vinci/>



《돈키호테》의 한 장면

스페인국립도서관?

도서관명	Biblioteca Nacional de España
운영시간	각 도서관은 본관과 분관의 운영시간이 상이함 * 본관 기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휴무) BNE 레콜레토스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BNE 알칼라데나레스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주소	Paseo de Recoletos, 20 E-28071 Madrid, SPAIN
홈페이지	www.bne.es/es

김윤아 •

《서점 여행자의 노트》 저자. 뉴욕, 런던, 파리, 리스본, 취리히 등에서 40여 곳의 서점을 탐방했고, 가장 인상적인 10여 곳에서의 기록을 책에 담았다. 다수의 매거진에 책과 여행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했다. 종로의 미술관에서 ‘일상에서 영감찾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아카이빙의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보존하던 데서 이제는 가치 있는 정보 자원을 미래세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까지 아우른다.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다.

글 이지옥(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사서) 사진 각 도서관



과거 기록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도서관에서는 고문헌, 고서 등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된 원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아카이빙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문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과거의 기록을 디지털 유산으로 보존하기도 한다.

부산도서관은 '부산의 기억' 서비스를 통해 부산학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의 행정, 역사,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고문헌, 사진, 행정 문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교육 및 연구, 문화예술 등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도서관은 소장 고서 및 귀중서, 고지도, 고신문, 구한국 외교문서 등을 디지털 아카이빙하여 원문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고지도 중 학술적 가치가 높고 희귀한 자료를 선별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료별·유형별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연구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 소장 자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과거의 기록을 온라인으로 디지털 아카이빙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원본 자료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 자료의 영구 보존이라는 목적 이외에도 자료의 접근성을 높여 연구·학습 지원과 주요 기록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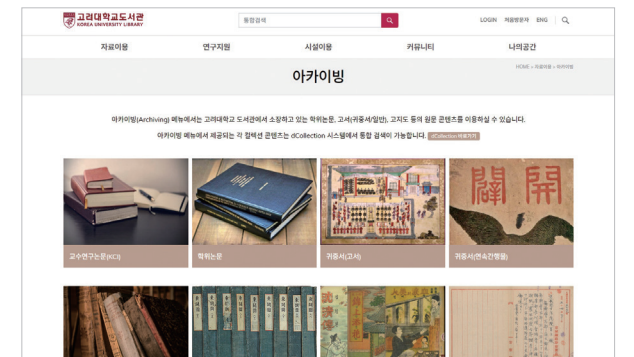
디지털 아카이빙은 과거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공유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프로그램, 아카이빙 스튜디오 등의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중앙도서관은 '기록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휴먼 in PAJU'는 파주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생애를 구술·채록하여 시민과 함께 기록문화를 공유한다. 2019년부터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파주 시민이 소장 중인 고문서, 사진, 편지, 일기 등의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지역 아카이브의 우수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경기도 메모리'는 개인·단체·기관과 함께 경기도의 기억과 기록을 모아 서비스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경기 도민, 경기도와 관련한 자원을 소장한 개인, 단체, 기관이



부산도서관 '부산의 기억'



고려대학교도서관 아카이빙



파주중앙도서관의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휴먼 in PAJU> 전시



경기도 고양시립일산도서관에서 발행한 발간물



참여 대상이며, 경기도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자원(문서, 도서, 사진, 영상, 물품 등)을 디지털로 아카이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고양시립일산도서관에서 진행한 아카이빙 사업 ‘동네 사람들, 동네 시장을 기록하다-100년의 이웃, 일산시장 & 일산오일장 아카이빙’이 있다. 일산시장과 일산오일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시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사진을 찍었고,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PDF로 제공된다.

이처럼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아카이빙은 일상생활에 묻혀 있는 소중한 기록, 추억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도서관에서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이용자들의 생생한 기록을 수집·공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며, 새로운 디지털 아카이빙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 아카이빙

도서관은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과거의 기록유산을 디지털화하고, 일상생활 기록을 수집 및 공유하는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으로 증가하는 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가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확산할 수 있으려면 장기적으로 플랫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인 ‘OASIS’는 디지털 지식 문화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미래세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했으며, 웹사이트와 웹 문서, 영상 및 이미지 파일을 주제별로 제공한다. 디지털 타임캡슐이라고도 불리는 OASIS를 통해 현시대뿐 아니라 과거의 웹 자원을 살펴볼 수 있다.

만약 기존의 OASIS 플랫폼의 검색 서비스에 인공지능(AI) 챗봇 기반 검색 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콘텐츠의 재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

이지옥 •

현재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팀 사서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대학신문〉을 비롯해 다수의 매체에서 도서관에 대한 칼럼을 연재했다.

34 문헌의 가치
《신편산학계몽》과 《음양잡설》
서책 앞뒷면에 빼곡히 담긴 안정복의 열정

38 문학상 읽기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은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
카멜 다우드의 《미르소, 살인사건: 카뮈의 《이방인》,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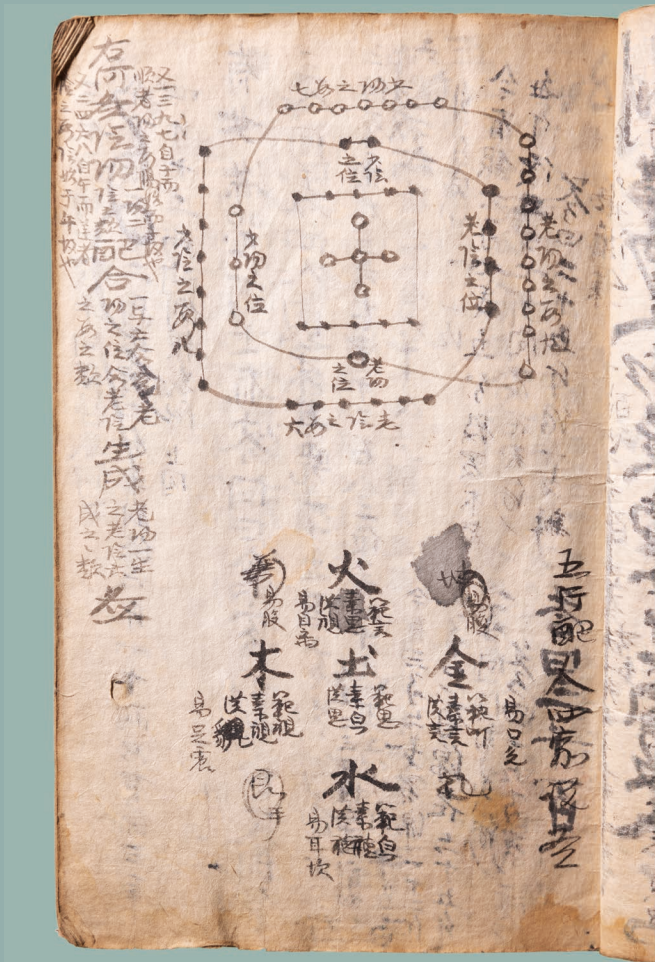
42 나를 바꾸는 독서
믿음이라는 세계의 형식
오후, 《믿습니까? 믿습니다!-별자리부터 가짜 뉴스까지 인류와 함께해온 미신의 역사》

46 숫자로 보는 테마 랭킹
무더운 여름에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
‘최근 3년간 여름 인기 급상승 도서 분석’

48 똑똑한 독서 생활
내 일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DIY 독서



서재를
견다



《신편산학계몽》과 《음양잡설》 서책 앞뒷면에 빼곡히 담긴 안정복의 열정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2년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탄생 300주년을 맞이해 특별 전시와 함께 학술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관련 자료들의 해제를 여러 선생님께 맡기고 작성된 해제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중 하나가 《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신편산학계몽》이 있으며, 《신편산학계몽》을 필사한 면의 뒷면에 《음양잡설(陰陽雜說)》이 필사되어 있다. 이 《음양잡설》이 안정복의 자필로 보이는데, 《신편산학계몽》으로 등록되어 있어 《음양잡설》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각보다 컸는지, 10년도 넘게 지난 지금 ‘어떤 자료를 소개할까’ 생각하다 보니 문득 떠올라 이 자료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글 한지희(학예연구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시대 실학자 안정복의 혼이 담긴 책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역사가이다. 그는 방대한 독서와 치밀한 연구를 통해 수많은 저작을 남겼다. 또한 스스로 “나는 가난하여 집에 쌓아둔 책이 없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즐겨 책을 초록(抄錄, 필사), 필요한 부분만 뽑아 적음)하여 잊어버리는 것에 대비하였다.”고 했다. 그는 46세 때인 1757년(영조 33) 경기도 광주 덕곡(德谷)에 정착하여 순암(順菴)이라는 서실(書室)을 짓고 1761년 50세에 이택재(麗澤齋)를 완성하였다. 이택재는 안정복이 후학을 양성하며 강학하던 장소이다. ‘이택(麗澤)’이란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을 닦고 수양에 힘쓰는 것”을 말하는데, 《역경(易經)》의 “두 개의 연못이 잇닿은 게 태(兌)니, 군자가 이를 보고 친구와 더불어 강습한다(이택태, 군자이 봉우강습(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택재의 장서는 일제강점기에 산일(흩어져 일부가 빠져 없어짐)되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장서각,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등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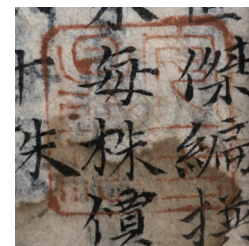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편산학계몽》은 조선총독부도서관이 1927년 5월 21일 이성의(李聖儀, 1902~1965)에게 0.95원에 구입한 것이다. 이성의는 1922년부터 1965년까지 40여년간 서울 익선동과 와룡동에서 화산서림(華山書林)을 경영한 고서적상이다.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는 1927년과 1928년 이성의와 나이토 사다이치로(內藤定一郎)에게서 순암 장서 99종 235책을 구입하였다.

수준 높은 조선시대 산서

먼저 《신편산학계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책은 세로 25.8cm, 가로 16.6cm이다. 포갑(包匣)을 열면 개장(改裝)한 표지에 ‘산학계몽(算學啓蒙)’이 필사되어 있다. 이 표지를 넘기면 원 표지가 나오는데 ‘산학계몽 전(算學啓蒙 全)’과 ‘부 음양잡설(附 陰陽雜說)’이 필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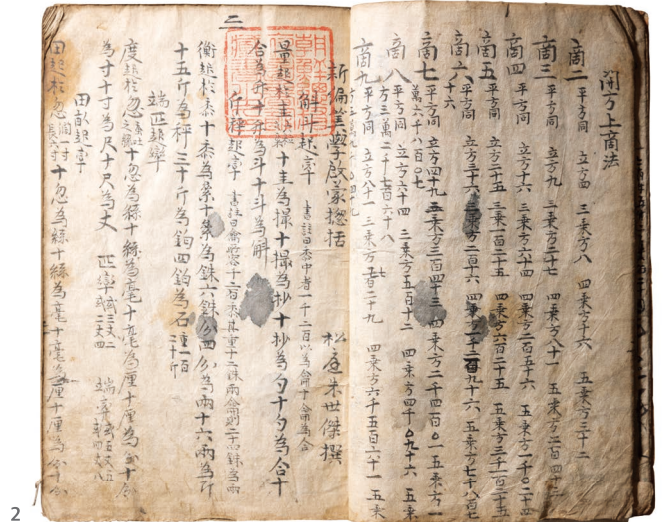
다시 한 장을 넘기면 표지 이면에는 붓글씨를 연습하였거나 어떤 글자를 썼다 지운 듯 겹쳐 칠해진 페이지가 있고, 그 뒷장에 ‘산세장단법위지도(算勢長短法謂之度)’라 하여 수의 단위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십홀은 사(十忽絲), 십사는 호(十絲毫), 십호는 리(十毫厘), 십리는 분(十厘分), 십분은 촌(十分寸)’과 같다. 뒷장에 ‘개방상상법(開方上商法)’이 나오고, 이어서 ‘신편산학계몽총괄(新編算學啓蒙摠括)’이라는 권두서명에 ‘조선총독부도서관장서지인(朝鮮總督府圖書館藏書之印)’이 찍혀 있고, 몇 페이지 뒤에는 ‘안정복인(安鼎福印)’이 찍혀 있다.

《신편산학계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기 전에 미리 고백하자면, 필자는 수포자로 수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고문헌의 서지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수학이라고 하면 서양 수학에 기원을 둔 수학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조선시대 산학서(算學書)를 처음 접하고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여기에서도 《신편산학계몽》을 설명할 기량은 아니고, 당시 해제를 맡아주셨던 홍성사 교수님의 해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 1 안정복 직인
- 2 '개방상상법'



2

본 《신편산학계몽》은 1299년 원나라의 주세걸(朱世傑, ?~?) 이 편찬한 《신편산학계몽》의 일부와 남송의 수학자 양휘(楊輝, 1238~1298)의 《양휘산법(楊輝算法)》 일부를 필사한 책이다. 일반 산학서와 같이 ‘금유(今有)’로 시작하는 문제, 답, 답을 얻는 과정을 기술하는 술(術)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래 술 부분에 계산 결과도 포함하지만, 필사자는 계산 결과는 대부분 생략하였다. 총괄(總括)에서 계산법, 산대를 늘어놓는 방법, 대수, 소수에 관한 항목을 모두 생략하였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신편산학계몽》은 성종 재위 기간(1469~1494)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을해자본(乙亥字本), 중종 재위 기간(1506~1544)의 을해자본, 1660년(현종 1)에 간행된 목판본, 1810년(순조 10)에 간행된 목판본 등이 있는데, 본서는 원본이나 조선 전기에 간행된 《신편산학계몽》을 필사한 책이다. 《신편산학계몽》의 원본 모두를 그대로 필사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 필사자가 《양휘산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와 《산학계몽》을 비교하고, 주세걸의 해설 중에 상당 부분은

수학적 구조만 옮겨놓은 것을 보면, 매우 뛰어난 조선의 산학자가 《신편산학계몽》을 연구하여 남긴 초본(抄本)이다. 《신편산학계몽》과 《양휘산법》의 원본을 이 정도로 보존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은 조선 산학과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생히 남아 있는 필사의 흔적

《신편산학계몽》 이면(裏面)에는 메모나 낙서 등이 필사되어 있다. 팔괘(八卦)의 배열을 건삼련(乾三連), 곤육단(坤六斷), 진앙우(震仰盂), 간복완(艮覆碗), 이중허(離中虛), 감중만(坎中滿), 태상결(兌上缺), 손하단(巽下斷)으로 적어두기도 하고, 오행에 대해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음양잡설》이 나온다. 안정복은 35세에 성호(星湖) 이 익(李瀾, 1681~1763)을 찾아가 그의 문하에 들어가기 전까지 독학으로 유교 경전을 비롯하여 각종 역사서와 백가(百家)의 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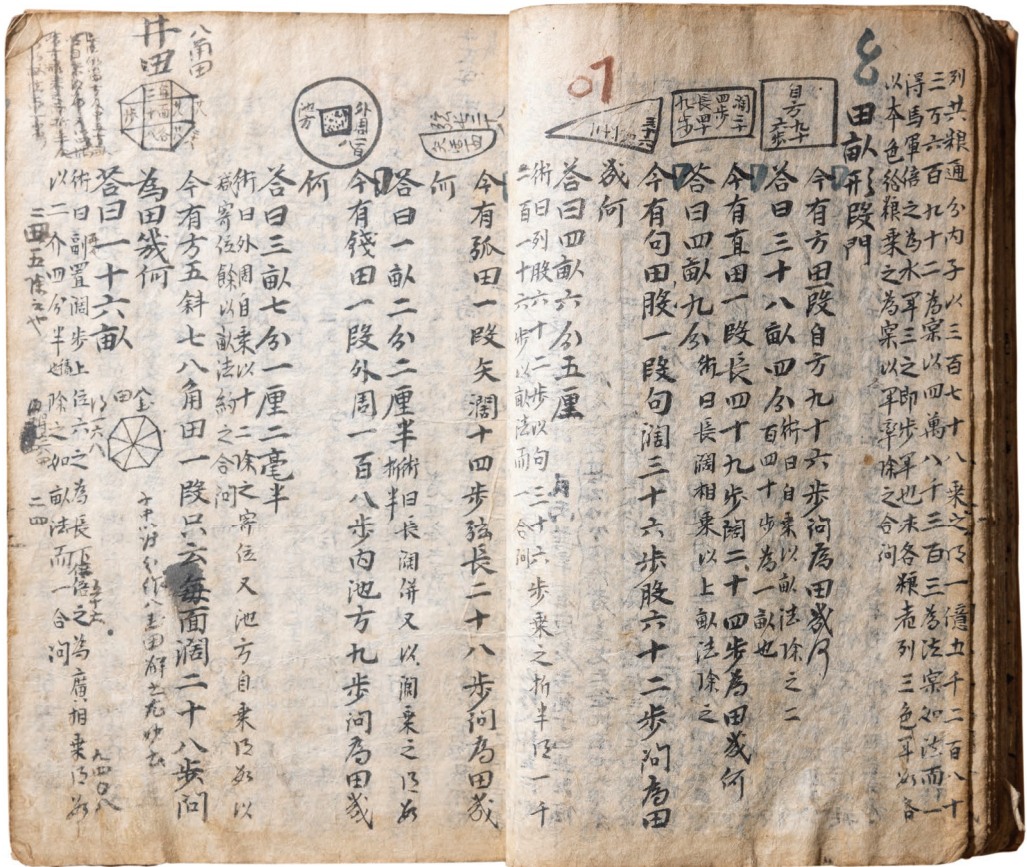


《신편산학계몽》 이면의 메모

을 두루 섭렵했다. <순암선생행장(順菴先生行狀)>에 따르면 어릴 적부터 “선비는 한 가지 기예(技藝)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여 가학(家學)을 기본으로 경사(經史) 이외에 음양(陰陽), 성력(星曆), 의학(醫藥), 복서(卜筮) 등의 기술학(技術學)과 손자(孫子), 오자(吳子) 등의 병서와 불교, 노자(老子) 등의 이단 사상, 그리고 패승(稗乘), 소설 등에 이르기까지 그 뜻을 궁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

《음양잡설》의 목록을 살펴보면 이기오행(理氣五行), 오행지도(五行之度), 방갑사주(方甲四柱), 방갑제작(方甲制作) 등 76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구절을 보면 “천지만물은 이와 기를 이루는 오행의 작용이다(天地萬物是理氣而五行之用).”로 시작한다. 《음양잡설》이 안정복의 저작인지 초록인지는 확실치 않다.

안정복이 수준 높은 산서(算書)를 소장하고, 뒷면의 빈 종이에 원고를 빼곡히 적어둔 것은 그의 폭넓은 관심과 학문적 태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편산학계몽》도 물론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뒷면에 기록된 안정복의 친필 원고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❷



《신편산학계몽》 속 필사



《음양잡설》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은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

- 카멜 다우드의 《되르소, 살인사건: 카뮈의 《이방인》,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

이 소설은 카뮈의 《이방인》을 다시 쓴 소설이다.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소가 죽인 아랍인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의 죽음으로 사라져버린 삶의 궤적과 시대의 아픔을 복원한다. 그것을 통해 알제리의 역사적·문화적 억압과 모순을 보여준다.

글 황정산(시인·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위키피디아

부조리를 부조리로 거부하는 글쓰기

카멜 다우드의 《되르소, 살인사건: 카뮈의 《이방인》,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는 2015년 ‘공쿠르상 최우수 신인상’ 수상작이다. 이 작품은 카멜 다우드의 첫 장편소설로 2013년 알제리에서 처음 출간되었으나 2014년 프랑스에서 다시 출간되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공쿠르 신인상을 포함해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수십 개국의 언어로 번역 출간된 것은 물론이고, 연극으로 각색되어 2015년 아비뇽 축제에서 공연되기도 했다고 한다.

카멜 다우드는 기자 출신이다. 1970년 알제리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뒤, 알제리 오랑시의 일간지 〈코티디앵 도랑〉의 기자로 지내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프랑스의 〈르몽드〉에 칼럼을 기고하며 냉철하고 비판적 지성의 글쓰기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는 또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많은 글을 썼는데, 이 때문에 이슬람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처형의 위협까지 당했다고 한다.

이 소설을 포함한 그의 글은 프랑스 식민지를 경험한 알제리의 현실과 역사 문화적 환경에서 어떻게 알제리인의 정체성을 찾아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카뮈가 《이방인》에서 보여준 부조리한 시각을 다시 부조리하게 재해석함으로써 식민지 경험이 아직도 알제리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공쿠르상이란?

공쿠르상(프랑스어: Prix Goncourt)은 노벨상, 부커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프랑스 작가 에드몽 공쿠르의 유언에 따라 1903년 제정되었으며, 프랑스의 아카데미 공쿠르가 매년 가장 우수한 소설 작품을 뽑아 상을 수여한다.



Kamel Daoud

살인은 죄지만
이런 세상에 정을 갖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다.

법정은 내 의견은 묻지 않고
내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



이름을 빼앗긴 자의 죽음

이 소설의 화자인 하룬은 알제리가 아직 프랑스 식민지였던 1942년 까뮈의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랍인’의 친동생이다. 형이 살해당했을 당시 일곱 살이었던 그는, 세월이 지나 노인이 되어 오랑의 한 카페에서 ‘이상한 책’(까뮈의 《이방인》)을 들고 프랑스에서 온 젊은 작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소설은 시작된다.

까뮈와 뫼르소에게는 그저 ‘아랍인’에 불과했던 하룬의 형 이름은 ‘무싸’였다. 무싸는 키와 손이 큰 듄직한 인물이었다. 일찍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와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의 보호자였다. 이런 보호자를 빼앗긴 엄마는 무싸의 죽음을 조사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시체마저 끝내 발견하지 못한다. 하룬은 죽은 형 무싸와, 무싸만을 생각하며 분노로 살아온 어머니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러다 1962년 알제리의 독립이 선포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 프랑스인이 하룬 모자가 점거하고 있던 집의 담을 넘어오자 “계속 뒤에 버티고 서 있던 엄마의 손에 떠밀리다시피 하여” 그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마당의 나무 아래에 묻는다. 결국 그는 체포되었지만, 수사를 받고 며칠간의 감금 생활에서 풀려난다. 뫼르소가 살인 때문에 비난받기보다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보인 무심함과 이후 방탕한 생활을 비판받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하룬은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독립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더 비판을 받고 그것이 해명되자 풀려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가 언제 프랑스인을 죽였는가, 즉 독립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큰 쟁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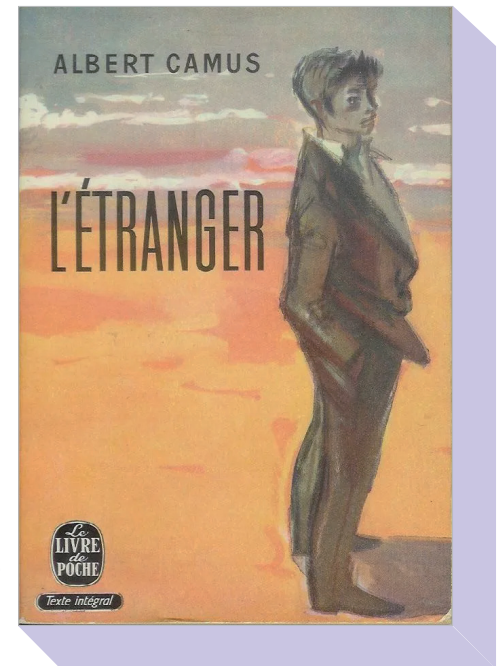
누가 이방인인가

하룬은 뫼르소의 책을 처음 읽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형의 마지막 말, 마지막 숨결에 대한 묘사라든가, 그의 모양새, 그의 얼굴 표정까지도 발견하리라 기대했지만 단지 살해된 아랍인에 대한 두 줄의 설명뿐이었다. 아랍인이라는 단어가 스물다섯 번이나 나오지만, 형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독자들은 죽은 아랍인 무싸의 삶을 궁금해하기는커녕 살인자 뫼르소의 실존적 고독에 공감하며 그를 추앙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하룬은 뫼르소를 추적해 갈수록 자신이 그와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출생지를 떠나 고아처럼 뫼르소가 이방인으로 살았듯이, 자신도 죽은 형과 그의 복수만을 생각하는 어머니 사이에 갇힌 채 이방인으로 살아온 것이다. 이 소설은 과연 누가 이방인인가 묻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한 삶을 지속해야 하는 독립 후 알제리 사회의 모순을 작가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❶



1



2

L'Étranger

- 1 《뫼르소, 살인사건: 까뮈의 《이방인》,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
- 2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가 1942년에 발표한 소설 《이방인》

황정산 • 1993년 《창작과비평》에서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정신과표현》에 시를 발표했고, 저서로는 《주변에서 글쓰기》, 《쉽게 쓴 문학의 이해》, 《소수자의 시 읽기》 등이 있다. 현재 계간 《상상인》 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믿음이라는 세계의 형식 오후, 《믿습니까? 믿습니다!-별자리부터 가짜 뉴스까지 인류와 함께해온 미신의 역사》

최첨단 문명 시대에, 그것도 IT 강국이라는 한국 사회에 살면서도, 우리는 특별한 인과가 없음을 알면서도 모종의 믿음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그 믿음이라는 감정이 내 주변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하는 셈이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글 김건형(문학평론가) 사진 출판사



근거 없는 믿음은 없다-미신의 합리성

오후 작가의 책은 이 합리적 근거 없는 믿음, 다시 말해 미신의 역사를 낱알이 파고들고 있다. 세계에는 이런 기이한 미신이나 미개한 미신도 있다는 식의 흥미 위주 소개에 그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농사를 시작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화, 점성술, 사주와 팔괘 같은 믿음이 당대 사회의 어떤 맥락에서 생겨났는지, 그 믿음을 유지했던 시대의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를 어린 시절 만화책으로 흥미롭게 읽었다면, 신들의 왕이라는 제우스가 어쩌서 그토록 체통 없는 캐릭터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아내 헤라의 감시를 피해 가며 다른 여신이나 요정들을 탐하는 바람기 많은 난봉꾼이자 트러블 메이커로 그려진다. 오후 작가는 그리스의 주신(主神) 제우스의 호색함은 그리스 세계가 다른 주변 지역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타민족의 신을(성적으로) 정복하는 신화가 축적되어 가면서 발생했음을 말한다. 또한 이 시기가 성적 폭력으로 권력을 확인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 가부장제적 사회규범이 자리 잡는 시기의 흔적임을 설명해 준다. 물론 여성을 대상화하면서 권력을 확인하는 미신은 고대만의 것은 아니어서, 유럽의 궁정에서 기사들과 신사들이 여성을 숭배하는 이유 역시 이를 공유하는 남성 사이의 권력 거래 및 향락과 밀접했다. 여성을 미학적으로(만 한정하여) 숭상하는 편견 역시 남성 권력이라는 사회적 제도와 밀접한 것이다.

그러니 신화나 편견은 다만 무지한 미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대인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현대의 기준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신화는 사실 당대 사회의 규범이 이상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고 다시 과거의 기준을 되살릴 필요는 물론 없다. 다만 “믿는 것과 별개로 모든 미신은 시대적 특성을 품고 있”으므로 “왜 그런 미신이 생겼는지를 따져보면 알지 못했던 사회의 이면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미신에 대한 독법이다.

현대인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거나 객관적으로 틀린 믿음이라도 그 아래에는 해당 시대·사회 맥락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읽어내고 있다. 이 책의 중요한 성취는

“믿는 것과 별개로 모든 미신은
시대적 특성을 품고 있”으므로
“왜 그런 미신이 생겼는지를 따져보면
알지 못했던 사회의 이면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관통하는
미신에 대한 독법이다.



이처럼 ‘미신의 합리성’을 찾음으로써 ‘미신의 사회학’에 도달하는 시선이다. 이 책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미신을 타파하겠다는 단순한 계몽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미신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황한지를 밝히는 데에도 관심이 없다.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현대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미신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인류가 가진 공통된 사유와 신념의 틀 자체를 분석하는 작업에 가깝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사유·감정의 형식은 어떻게 태어나고, 무엇을 생산하며, 왜 아직 이토록 중요한가를 다룬다.

사회를 만드는 언어 형식-미신의 심리학

처음에는 그저 특정 집단의 미신에 가깝던 믿음이 축적되고 확장되면서 체계를 갖춘 종교로 발전하기도 한다. 개별 예언자, 선지자의 개인적 능력에 의존하던 미신은 누구나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레시피를 찾고 이를 보급하는 시스템(프랜차이즈 기업처럼)을 갖추게 되면 평균적으로 적당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 종교의 반열에 오르고 사회를 형성한다. 종교가 되지 않더라도 특정한 믿음이 축적되면 이는 점차 다음 세대의 삶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습이 된다. 믿음의 근거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거나 열어지더라도 인류는 그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후 작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민족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현대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역시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종교적 믿음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복잡한 논리를 걷어내고 나면 종교도 사상도 근본적으로는 특정한 노력을 통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공약을 근거로 한다. 이것은 인간의 공통된 심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원래 세계를 바꿀 수 있지만 당신이 충분히 믿지 않고 충분히 투신(投身)하지 않았다면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지금 나의 불행을 설명하고,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더없이 합리적인 논리다. 그러니 종교도 사상도 기실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감정 형식)은 종교인이나 신자만의 것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경제·정치 제도, 사상 및 시대 의식과 분리할 수 없다. 어떤 사회적 변화라 해도 인간의 믿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움직인다. 다시 말해, 믿음은 인류 역사라는 복잡계¹를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인 것이다. 오후 작가가 문화인류학, 종교학, 역사학, 비교동물학적 관점을 넘나들며 다양한 미신의 사례를 종합해 도달하는 결론 역시, 믿음은 그 자체로 인간 사회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이다.

현대에도 미신은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지구 평평설(지구가 구체가 아니라 완전한 평면이라는 주장)이나 백신 음모론(대기업이나 정부가 백신에 독약 혹은 인간을 조종하는 미세 칩을 넣었다는 미신)처럼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도 믿음을 포기하기는커녕 역으로 그 과학적 반박이야말로 주류 언론의 왜곡된 ‘미신’이라고 화를 내기도 한다. 이 두 믿음은 흥미롭게도 정치·경제적으로는 물론 기술 수준에서도 최정성기를 맞은 미국에서 가장 흥행하고 있다. 음모론적 가짜 뉴스와 ‘대안적 사실’의 발상지도 미국이다. 이것은 미신을 과학 문명으로 쉽사리 퇴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후 작가는 오히려 사회의 진보로 인해 세계(를 설명하는 언어)가 더 복잡해질수록, 그 복잡함을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더욱 미신을 불러들인다고 설명한다. 개인으로서는 미신이 불가해한 세계를 더없이 단순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신의 역할을 파악했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세계의 복잡함을 설명하고 풀이해 줄 새로운 언어를 발명하는 일이다.

인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온갖 너스레와 사진 자료를 곁들이며 재미있는 입담으로 소개해 주는 풍부한 사례들을 읽다 보면, 세계를 두루 여행한 박식한 친구와 술자리를 함께하는 듯한 착각도 든다. 종교적 원리주의자가 소수자를 차별하기 위해 종교를 근거로 드는 것이 기실 얼마나 비종교적인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대목이나, 신흥 종교나 소수 종교를 박해하는 기성 종교의 아집에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음을 지적하는 대목은 신랄하면서도 명쾌하다. 그 문체의 흡입력에 빠져들어 한 권을 읽은 자리에서 모두 읽고 말았다. 종교가 있든 없든 이 책은 그 자체로 인간이라는 종을 설명하는 중요한 방법을 알려준다. 비합리적이기 짝이 없는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내적 합리성을 찾아내고 대화하고자 하는 이 책의 의지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해 내고야 만다. ❶

¹ 많은 구성 요소들의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복잡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일정한 집단적 성질을 띠는 세계

김건형 • 198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 문학동네신인상을 수상하며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현재 계간 《문학동네》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사회의 진보로 인해 세계
(를 설명하는 언어)가 더 복잡해질수록,
그 복잡함을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더욱 미신을
불러들인다고 설명한다.

무더운 여름에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 ‘최근 3년간 여름 인기 급상승 도서 분석’

여름에는 다양한 이야기와 장르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름휴가 동안 읽기 좋은 힐링 소설부터 간담이 서늘해지는 미스터리 추리소설까지. 최근 3년간 여름을 맞아 전월 대비 인기가 급상승한 도서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정리 이혜민 자료제공 각 출판사 데이터 출처 도서관 정보나루(www.data4library.kr)

분석 기간 2021.7.1~2021.7.31. / 2022.7.1~2022.7.31. / 2023.7.1~2023.7.31.(검색 조건: 아동 도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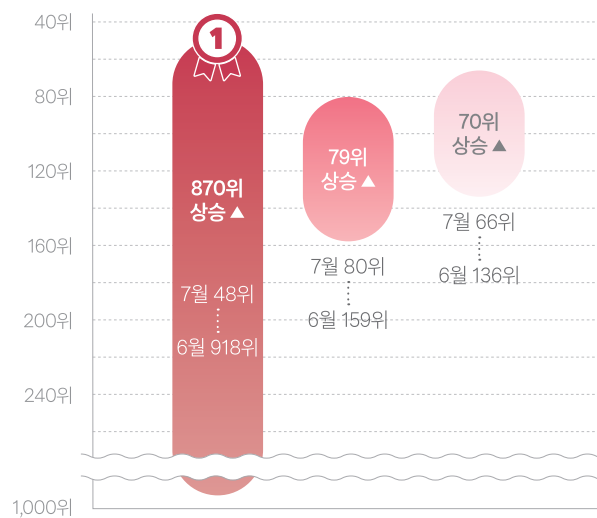
2021



완전한 행복

정유정 지음 | 은행나무 | 2021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당연해 보이는 명제에서 출발하면서도, ‘나’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부딪치는 순간 발생하는 잡음에 주목한 책이다. 압도적 서사 위에 정교하고 서늘한 공포가 있다.



- 1위 《완전한 행복》
정유정 지음 | 은행나무 | 2021
- 2위 《그러라 그래》
양희은 지음 | 김영사 | 2021
- 3위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야쿠마루 가쿠 지음 | 김성미 옮김 | 북플라자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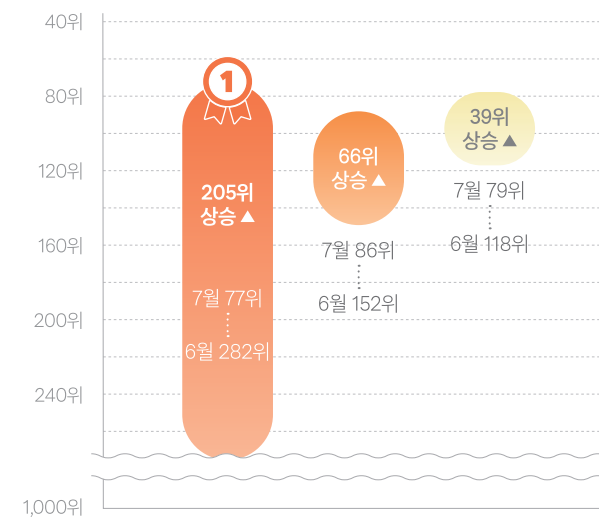
2022



책들의 부엌

김지혜 지음 | 팩토리나인 | 2022

입맛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 주듯 책 속의 장소에 찾아온 인물들의 고민을 듣고 꼭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 내용이다. 삶에 휴식이 필요할 때, 우연히 들른 ‘소양리 북스 키친’에서 휴식과 대화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 힐링 소설이다.



- 1위 《책들의 부엌》
김지혜 지음 | 팩토리나인 | 2022
- 2위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꽃님 지음 | 문학동네 | 2018
- 3위 《페인트》
이희영 지음 | 창비 | 2019

다양한 책과 함께하는 여름

최근 3년간 더위질 무렵 인기가 급상승한 도서들을 살펴본 결과 수많은 장르와 주제의 책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리소설부터 에세이, 힐링 소설 등 다양한 책들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다양성은 독자들이 저마다 어떻게 여름을 보내왔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때 이른 더위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는 요즘, 아직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더위를 잊을 만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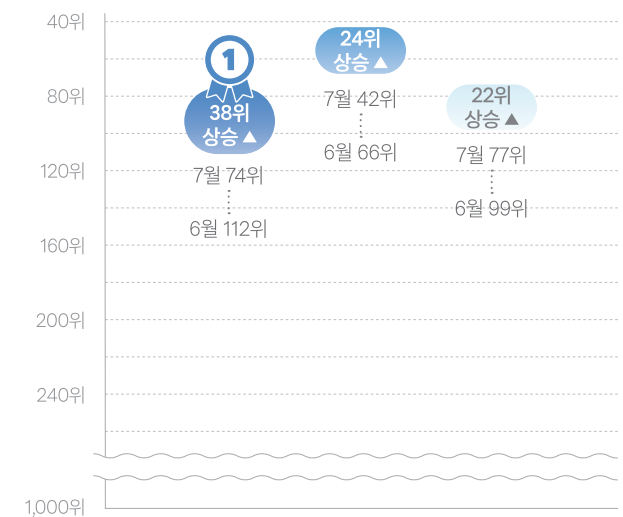
2023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마치다 소노코 지음 | 황국영 옮김 | 모모 | 2023

친근하고 일상적인 장소인 편의점을 무대로 나이, 성별, 취향, 사연, 그리고 편의점을 찾는 목적까지 제각각인 손님들과 어딘지 모르게 미스터리한 직원들이 펼치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 1위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마치다 소노코 지음 | 황국영 옮김 | 모모 | 2023
- 2위 《체리새우 :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지음 | 문학동네 | 2019
- 3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양윤옥 옮김 | 현대문학 | 2012

내 일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DIY 독서

한국십진분류법(KDC)에서 500번대는 ‘기술과학’이 주류(主類, main class)이다. 종종 ‘응용과학’이나 ‘실용·취미’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사실 500번대 서가는 ‘철학’, ‘종교’, ‘역사’와 같이 어떤 특정한 범주라기보다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라면 모두 받아들이는, 가장 풍만한 서가이다. 수많은 비전(祕傳)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 서가 안을 거닐다 보면 없던 취미도 생길 판이다. 분명 철학이나 과학 코너에 있을 법한 도서들도 이곳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주류가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면이 강하다면, 500번대는 실용·활용·기능 학습 면에 특화되어 있다. 이 서가의 책들은 지금 당장 내 일상을 작게나마 꾸미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식을 잘 만들고 싶다면, 집 짓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수영을 배우고 싶다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바로 여기 500번 서가로 오라. 자, 오늘부터, Do It Yourself!

글 박순영(독서 컨설턴트) **참고도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박순영 지음, 미래문화사, 2023)



Do, 나에게 알맞은 책 고르기

물론 500번대에도 다른 주류와 같이 이론서와 연구서, 학술서가 있다. 다만 500번대의 분명한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실용성’, 곧 현실 적용에 있다. 실용서는 특히 저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실용서의 내용이 저자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해 온 것들, 오랜 시간을 거쳐 이런저런 임상을 거친 것들, 일반론보다는 구체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저자 개인의 경력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책날개나 속표지, 판권지 등에 기재된 저자의 경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용서는 학습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먼저 학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어본 책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교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떤 책이 가장 많이 읽힌 책일까. 우선, 판권지에 적힌 ‘○판 ○쇄’를 보면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도서관 장서는 대체로 초판인 경우가 많고 같은 책을 중복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판쇄 수를 확인하긴 어렵다. 그래서 판쇄 수는 서점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 대신 도서관에서는 대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슷한 종류의 도서들을 모아놓은 대출 통계를 보고 꾸준히 많은 사람에게 읽힌 책을 골라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책보다는 신간이 나은 편이다. 실용과 기능은 늘 새로운 기술이 채택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신간이 학습하기에 유리하다. 특히 일부 도서는 주기적으로 개정판이나 증보판이 나오곤 하는데, 이런 경우 저자가 해당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It, 내 일상에 새겨 넣기

500번대 책들은 과연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 대충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의학적 처치부터 다이어트, 힐링, 옷 잘 입는 법, 인테리어, 식물 가꾸기, 가정생활까지 자기 계발과 관련한 주제들이 있다. 또한 각종 음식 레시피, 맛집 소개, 커피와인 등 먹거리와 관련한 취미 등의 주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족과 일상에 대한 주제로는 육아법 및 자녀 교육법, 좋은 부모 되기, 반려동물 키우기 등 모두 지금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주제들이다.

500번대 도서를 읽었다면,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결핍된 무엇, 가까운 미래에 꼭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실용서의 경우 독서와 실천이 동시에 진행되려면 그만큼 유인 동기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거나 자녀 교육이 고민이 될 때 라거나 하는 어느 정도의 절박함이 깔려 있어야 한다.





Yourself, 읽고 스스로 실천하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500번째 실용서가 알려주는 내용은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들이기도 하다. 사실 실용서와 인터넷 사이에는 오묘한 관계가 있다. 인터넷은 실용서가 출간되는 계기가 되곤 한다. 이미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을 대중에게서 인정받은 실력자가 실용서를 출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내용이 겹치다 보니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될 것을 굳이 책을 읽어야 할까, 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검색은 일시적이고 검색된 정보는 파편적이다. 어떤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부득불 교과서가 필요하다. 실용서는 충실한 교과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터넷은 오히려 실용서의 훌륭한 보완 재 역할을 한다. 저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책 이외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하며 독자들과 직접 소통 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는 실용서를 제대로 활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만약 컴퓨터 엑셀 사용법이나 요리법 을 배운다면, 실습 노트를 만들어보자. 학습은 측정이 중요하다. 이 측정은 가능하다면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다.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수치화된 것을 실제로 보면서 할 때 학습 효율이 향상한다. 실습 노트는 꼭 종이가 아니어도 좋다. 실용서의 저자들처럼 블로그 로 자신의 실습 과정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습 과정이 한 페이지씩 축적되는 것도 실력 향상을 시각화해 준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꾸준히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해 준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라. 당신이 근사한 사람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가끔 귀찮아지더라도 주변 사람 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쉽게 그만두지 못하게 된다. 어쩌면 무언가를 계속 배워나가는 의지 자체가 이미 더없이 값진 삶이며 풍족한 일상이지 않을까. ❶

박순영 •

2016년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인 '독서토론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을 만들고 독서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대학교·도서관 등에서 독서 동아리 멘토 및 토론, 독서, 인문학 등의 강연을 해오고 있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9 한 장의 감성



함께 나누다

국립중앙도서관 NEWS

‘제18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제18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전 포스터

국립중앙도서관은 7월 1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 전국의 사서와 도서관·문화기관 종사자, 대학(원)생 개인 및 단체(기관)를 대상으로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를 공모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자유 주제 외에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제3의 공간, 도서관’을 주제로 선정하여, 정보·교육 및 문화·여가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소외감 문제해결을 위한 교류의 공간,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공간 등 도서관에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하여 운영한 사례 또는 이와 관련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한다.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총 8편의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상금 150만 원, 장려상 5편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및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우수작들은 자료집으로 제작·배포하여 전국 도서관에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기획·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상식은 오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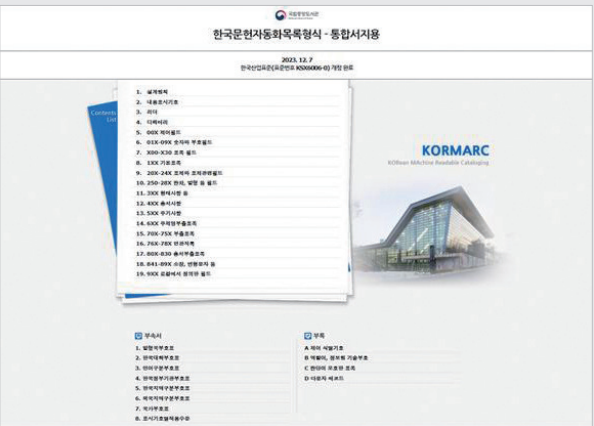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응모 양식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의 ‘도서관 소개 > 도서관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우수작 역시 누리집 ‘도서관 소개 > 발간자료 > 기타자료 > 기타’에서 볼 수 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2024. 7. 1.(월) ~ 8. 2.(금)
- 공모부문 아이디어 및 현장사례
- 공모대상 사서, 문화기관 종사자, 대학(원)생 개인 또는 단체(기관)
- 공모내용 -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제3의 공간, 도서관
-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자유 주제
- 공모일정 접수기간: 2024. 7. 1.(월) ~ 8. 2.(금)
수상작 발표: 2024. 9. 13.(금)
시상식: 2024. 10월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 기획총괄과 02-590-0578

국가서지 표준 형식, 《KORMARC》(개정판) 전자책 발간



《KORMARC》전자통제용 전자책 메인 화면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통합서지용 및 전자통제용 개정판을 전자책으로 발간해 전국 도서관과 사서들을 지원한다. 《KORMARC》는 자료의 서지 정보 작성과 교환을 위한 국내 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으로, 통합서지용, 전자통제용, 소장정보용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판은 국제 서지 모형과 규칙, 링크드 데이터 등 최신 목록 동향을 반영하고 MARC21과의 호환성을 높였으며, KORMARC 표준 간 다르게 사용하던 용어를 통일하였다. 개정 작업은 2021년부터 연구, 공청회, 실무자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3년 12월에 완료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지원서비스 누리집(<https://librarian.nl.go.kr>) > 한국서지표준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메뉴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개정이 목록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서지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문의 국가서지과 02-590-6350

작은도서관 정보누리(KOLASYS-NET) 홈페이지 새 단장



작은도서관 정보누리(KOLASYS-NET) 메인 페이지(이용자용)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을 위한 자료 관리 시스템인 ‘작은도서관 정보누리(KOLASYS-NET)’를 개편하여 2024년 6월 4일(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개편 작업을 추진해 올해 4월부터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사항을 보완했다. 작은도서관 정보누리는 예산 및 운영 인력이 부족하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작은도서관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웹 기반 통합 자료 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1,817개 도서관에서 약 14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맞춤형 홈페이지, 도서 관리 및 대출 반납 기능, 통계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신규 도입을 원하는 도서관은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정보기술기반과 02-3483-8891

‘한국 근대문헌 장정의 문화사’
학술대회 개최



‘2024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 발표자



‘2024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 전경

국립중앙도서관은 5월 31일(금) 오후 2시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한국 근대문헌 장정(裝幀)의 문화사’를 주제로 근대서지학회, 한국디자인사학회, 강원대학교와 함께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오영식 근대서지학회장, 조혜영 한국디자인사학회장, 조혜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과장 등 150여 명이 참여해 한국 근대 문헌 장정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논의했다. 주요 발표로는 근대 초기 장정의 역사, 근대 번안소설 표지화, 근대 신문 장식 그림 분석 등이 포함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학술 행사를 통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근대 문헌의 ‘장정’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논의하며 근대 문헌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의 고문헌과 02-590-6397

‘사서한마당 연계 영상콘텐츠 공모전’
개최



‘2024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한마당 연계 영상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1일(토)부터 6월 30일(일)까지 ‘202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한마당 연계 영상콘텐츠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했다. 참가 대상은 전국 도서관 및 소속 직원이며, 사서 교육훈련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모전은 도서관(직원)이 소개하는 도서 안내 영상 등 4개 분야로 진행되며, 응모 작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서관 및 영상 전문가들의 1차 심사 후,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전국의 도서관 사서들이 모이는 2024 사서한마당(워크숍)에서 온라인 및 현장 투표로 2차 심사와 시상식이 진행된다. 사서한마당은 전국의 도서관 사서 100여 명이 업무 지식 공유와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도서관 발전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는 현장으로 올해는 9월 26일(목)~27일(금)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된다.

문의 도서관인재개발과 02-590-0553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 읽어 주세요’ 현장 캠페인 개최



‘책 읽어 주세요’ 현장 캠페인 포스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9회 전남독서문화한마당’에 참여하여 ‘책 읽어 주세요’ 독서 진흥 캠페인을 5월 29일(수)부터 6월 1일(토)까지 4일간 진행했다. ‘도서관의 날’과 ‘어린이날’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이 캠페인은 마임이스트와 그림책 작가들이 ‘책요*’ 선생님이로 참여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마임이스트 김기민이 책을 읽어주고 마임 놀이를 했으며, 그림책 작가들이 ‘책요’로 참여하여 다채로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오전 11시부터 12시에는 부모님들이 ‘책요’가 되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독후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 ‘책 읽어 주세요’ 캠페인의 줄임말로, ‘책 읽어 주는 요정’이라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음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6

국내 도서관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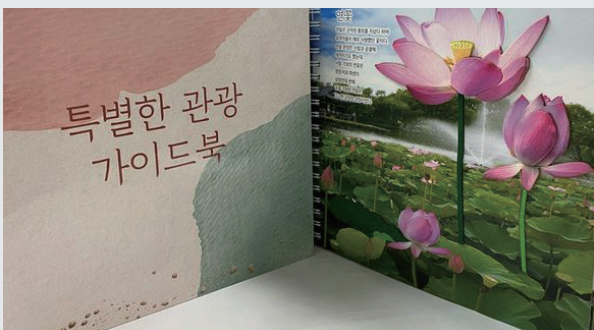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첫 회의 개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는 5월 29일(수)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을 심의·의결했다. 윤희운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확정된 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비전으로 오는 2028년까지 ▲모두의 도서관 ▲연대·협력 플랫폼 ▲K-지식 자원 보고 ▲도서관 혁신 등의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용 점자촉각도서 보급



(출처: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공공도서관·시각장애인도서관·특수학교 등 356곳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촉각도서 '특별한 도서' 4종을 보급한다. '특별한 도서'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촉각·점자·음성·큰글자로 구성된 책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4종은 ▲《국악기》 ▲《서양악기》 ▲《특별한 관광 가이드북》 ▲《특별한 열린관광 가이드북》 등이다. 이번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유로운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도서관 2024 IFLA PressReader 국제 마케팅상 수상



서울도서관의 책 읽는 서울광장 사진(출처: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의 야외 도서관 프로젝트가 2024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의 국제마케팅 어워드에서 2등을 수상했다. IFLA PressReader 국제 마케팅 어워드는 IFLA 경영 및 마케팅 섹션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은 창의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마케팅 프로젝트 또는 캠페인을 실행하는 도서관 조직에 수여된다. 2등을 수상한 서울도서관은 대규모로 도서관을 외부에 개방하여 코로나19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도서관을 소개함으로써 도서관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심사위원단은 이 이니셔티브가 모든 규모의 도서관에 큰 영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군립도서관·가족센터 개관식 개최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군은 5월 31일(금) 정선군립도서관 야외 광장에서 주민 및 내빈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립도서관·가족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오페라 공연과 이은결 마술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 보고, 감사패 수여, 개관 선포 등 개관식과 시설 관람으로 진행됐다. 또한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창업 물품 판매와 평생학습도시 선정 홍보 등의 플리마켓이 부대행사로 펼쳐졌다. 2019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결실을 맺은 정선군립도서관·가족센터는 지상 3층 규모이며, 미디어·IT 교육실을 갖춘 평생학습관, 차별화된 아동 보육을 위한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6월에는 개관을 기념해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상남도 사천시립도서관 개관



(출처: 경상남도 사천시)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자 반룡공원과 연계한 숲속 도서관 개념으로 지어진 사천시립도서관이 6월 1일(토) 정식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서천호 국회의원,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시립도서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사천시립도서관은 총 사업비 258억 원을 투입해 정동면 예수리 반룡공원 안에 지상 4층, 연면적 5,270m² 규모로 지어졌다. 시립도서관은 문화, 정보, 지식을 담아내는 소통의 장소이자 숲속의 도서관이라는 모티브로 자료 이용 공간과 문화 교육 공간으로 탄생했다. 사천시립도서관은 매 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국외 도서관 NEWS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인권으로서 보편적인 보건 정보 접근성에 관한 성명서' 발표



©shutterstock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도서관이 차별 없이 정보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에 따라, '인권으로서 보편적인 보건 정보 접근성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Universal Access to Healthcare Information as a Human Right)'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IFLA는 정부가 입법과 규제 및 예산 지원을 통해 도서관이 그러한 잠재성을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고 또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연구도서관협회,
'IDEAL 2024' 콘퍼런스 개최

미국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는 7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국제학술대회인 'IDEAL 2024'를 개최한다. 이번 IDEAL 2024의 주제는 '전 지구적 공동체에서의 지속 가능한 저항과 복원(Sustainable Resistance and Restoration in Global Communities)'이다. 지속 가능한 실천은 공평한 시스템과 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지역사회에서의 복원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간에서 그 공간과 협력하고, 연결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뜻이다. 또한 ARL은 콘퍼런스에서 개인과 집단의 욕구를 지원하는 '돌봄의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도서관 프로젝트 기금 제공자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스티칭 IFLA 글로벌 라이브러리(Stichting IFLA Global Libraries, SIGL: 국제 도서관 협회 및 기관 연맹(IFLA)의 글로벌 도서관 분야 활동을 강화하고 심화하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설립됨)'와 도이엔 프로젝트(The Doyenne Project)가 도서관 프로젝트의 기금 제공자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100여 개의 대형 기금 제공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 잠재적인 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도서관 및 도서관 협회에 중요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
(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네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한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라네.
—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